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제 7호

2022 가을 · 겨울호

실천하는 인지학

반도르프 교육예술



“우리는 발도르프 교육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 루돌프 슈타이너

기억 속에 인지학센터는 늘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마포에서 방이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짐을 정리하며 창기부터 지금까지 쌓인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 생의 과업을 완수하였듯, 실천가 루돌프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 인지학의 뿌리와 열매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지학협회가 그와 함께했습니다. 스위스 괴테아눔은 인지학운동의 중심입니다. 시대의 질문을 연구하고 정신적으로 나아가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과에서 인지학 응용 분야를 연구하고 알립니다. 출판 사업은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5년 전을 돌아보면, 저는 인지학센터와의 인연으로 슈타이너와 발도르프 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발도르프 학교가 없던 시절, 독일이 아직 마르크 화폐를 사용하던 때 독일로 떠났습니다. 엥엔 청소년 세미나와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바라보던 차에 저에게 하나의 과제가 다가왔습니다. 부산 자유발도르프 학교의 설립 교사가 되어 1학년 아이들과 만났고 8년간 담임교사를 마치고 연극교

사로 근무하면서 인지학센터의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동시에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에도 기꺼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간 다수의 국공립 학교, 대안학교와 발도르프 교육현장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발도르프 교육예술가의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발도르프 전문교육기관의 책임 있는 현장 지원, 재교육의 필요성도 절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센터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인지학센터가 20년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유아교육대학과 공동으로 시작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의 결실로 현재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발도르프 유아교육이 한국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임 발도르프 평생교육원은 발도르프 기초교육과 재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인지학출판사는 슈타이너 전집을 비롯하여 발도르프 교육의 기초 자료를 번역, 출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이 새로운 동작 예술을 펼칩니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된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학센터의 터를 서울 송파로 옮겨 새로이 출발하는 오늘,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가 한국의 괴테아눔으로 성장하고,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중심지,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예술가들의 아틀리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학센터의 역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발도르프 교육이 성취될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센터장 신영주 드림



겨울 계절 탁자 수공예 연구원 한은숙 작

겨울은 일년 중 밤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짧은 계절입니다. 날씨는 춥고 분위기는 고요하고 조용해지며, 차분하고 차가운 이성을 갖게 합니다. 한 해 동안 봄, 여름, 가을의 외적인 성장을 거친 뒤 추운 겨울을 견뎌내면서 내적인 성장을 하고 그 한 해를 매듭짓는 데에 겨울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겨울은 모두가 새 생명을 싹 틔울 부활의 꿈을 안고 있는 계절입니다. 계절탁자를 꾸밀 때는 깊이 스며드는 듯한 짙은 갈색의 땅 위에 차가운 얼음과 새하얀 눈을 상징하는 흰색과 여러 가지 톤의 파랑색을 사용합니다.



목차

05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졸업

- 06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소개
- 08 지도 교수 축하
- 11 교사 양성과정 1, 2기 재학생 인터뷰
- 17 졸업 공연 후기
- 18 특별 기고 - 오이리트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9 2022 겨울 교사 아카데미

- 20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23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27 2022 여름 교사 아카데미

- 28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36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43 2022 국제 특강과 세미나

- 44 발도르프 특수교육
- 48 인지학 영혼달력
- 49 혼합 연령 교실의 기적

51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55 응용인지학의 현장 소식

- 56 희수자연학교
- 58 동림자유학교
- 60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 61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부모 손뜨개 모임
- 63 한국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연대

65 빛나는 2022, 여럿이 함께

- 66 내부강좌 이모저모
- 73 인지학센터 소식
- 74 위탁기관 소식
- 76 신간 소개
- 79 후원 안내
- 83 후원신청서
- 85 202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 86 광고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졸업

- 06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소개
- 08 지도 교수 축하
- 11 교사 양성과정 1, 2기 재학생 인터뷰
- 17 졸업 공연 후기
- 18 특별 기고 - 오이리트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제 7호

실천하는 인지학
발도르프 교육예술

2022 가을 · 겨울호

발행인 이정희
편집인 신영주
편집팀 장주현, 최은영, 한교숙, 허지혜
디자인 김다운

표지그림 미하엘 레버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총 책임교수)
-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 내한공연
/ 2001년 11월, 서울 호암아트홀

도움주신 분들 김세정, 김태영, 백미경, 손석심, 여상훈, 유병현, 한은숙
제작 싱크스마트

발행일 2022년 12월 8일
발행처 (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05659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76 성암빌딩 5층
전화 02-832-0523
팩스 02-832-0526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홈페이지 http://steinercenter.org

이 소식지의 제호는 박윤정타이포랩의 '신영복' 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은...

2016년 8월에 설립되어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과의 협력으로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은 총 5년 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졸업 후에는 발도르프 유아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오이리트미 전문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책임 교수진



미하엘 레버 Michael Leber

- 엘리스 펄스, 엘제 클링크에 이어 제 3대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 관장 역임
- “메르헨 앙상블” 창설 및 오이리트미 공연 기획
-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총 책임교수



하이오 데커 Hajo Dekker

-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 졸업, “엘제 클링크 앙상블” 단원 역임
- 미국과 영국에서 오이리트미 교사 역임, 2005년부터 한국에서 일반인 대상 오이리트미 코스 지도
-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음악-언어 오이리트미 지도교수



한미경

-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 졸업,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 교육학 석사
- “메르헨 앙상블”, “켄헨 오이리트미 슈튜디오” 단원 역임
- 슈투트가르트 질버발트 발도르프 학교 오이리트미 교사 역임
-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음악-한국어 오이리트미 지도교수



- 2016. 07. 26 - 08. 15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예비학기
- 2016. 07. 28 - 29 / 08. 09 - 10 오이리트미 워크숍 “21세기 새로운 동작예술 체험” (지도: 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 2016. 12. 28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1학년 (지도: 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임동원, 한미경)
- 2017. 01. 04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개관
- 2017. 01. 16 - 17 오이리트미 워크숍 (지도: 하이오 데커)
- 2017. 03. 30 국제 특강 ‘동화와 오이리트미’ (지도: 미하엘 레버)
- 2017. 04. 03 - 04 오이리트미 예술 체험 - 성인워크숍 (지도: 미하엘 레버)
- 2017. 05. 01 - 05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 초청 공연 ‘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 ‘괴테의 시, 바하와 모차르트의 음악’
- 2017. 05. 02 - 04 오이리트미 워크숍 - 아동, 청소년 (지도: 한미경)
- 2017. 05. 11 - 13 오이리트미 예술 체험 - 성인워크숍 (지도: 미하엘 레버)
- 2017. 07. 25 - 26 세미나 <인지학에서 바라본 동화해석: 그림형제 동화 ‘하얀뱀’>
- 2017. 12. 28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 과정 1기 2학년 (지도: 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임동원, 한미경)
- 2018. 03. 08 - 10 오이리트미 워크숍 (지도: 미하엘 레버)
- 2018. 03. 15 - 05. 17 오이리트미로 들려주는 이야기 (지도: 신승혜)
- 2018. 05. 25 - 27 오이리트미 워크숍 (지도: 하이오 데커)
- 2018. 07. 24 - 08. 02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2기 예비학기 (지도: 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임동원, 한미경)
- 2018. 10. 30 - 11. 01 오이리트미 워크숍 (지도: 미하엘 레버)
- 2019. 05. 01 - 02 2019 서울 국제 오이리트미 예술제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기념 공연)
- 2019. 05 서울 국제 오이리트미 예술제 동화, 시와 음악 오이리트미 및 재학생 공연
- 2019. 06. 17 - 19 오이리트미 워크숍 (지도: 미하엘 레버)
- 2019. 10. 28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3학년 / 2기 1학년 (지도: 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임동원, 한미경, 신승혜)
- 2019. 10. 30 - 12. 19 성인을 위한 오이리트미 일반 강좌 (지도: 정나란)
- 2020. 06. 04 - 07. 23 성인을 위한 오이리트미 일반 강좌 (지도: 정나란)
- 2020. 11. 08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4학년 / 2기 2학년 (지도: 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한미경)
- 2021. 08. 06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5학년 (지도: 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한미경)
- 2022. 04. 22 - 24 서울오이리트메움 1기 졸업공연
- 2022.04 1기 졸업공연
- 2022. 08. 01 - 03 / 08. 09 - 11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관심자를 위한 기초 코스 (지도: 하이오 데커, 한미경)
- 2022. 08. 13 - 27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졸업생을 위한 재교육 (지도: 하이오 데커, 한미경, 장은심, 신영주)
- 2022. 08. 29 - 30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졸업 논문 발표회



2017. 01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개관식



2018. 08 여름 아카데미 발표회



2019. 04 봄 블록 수업



2019. 06 봄 블록 수업 되돌아보기



2020. 01 겨울 아카데미 발표



2020. 08 여름 블록 수업



2021. 08 여름 블록 수업



2021. 11 가을 블록 수업



2022. 04 봄 블록 수업



2022. 08 1기 졸업 논문 발표회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졸업을 축하하며

옛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1998년 저희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미 메움>의 예술가 그룹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단원은 일본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갔다가 동경에서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 며칠간 한국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공연장은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이었습니다. 이때 독일 오이리트미 단원들은 처음 경험하는 서울과 한국의 문화에 놀라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몇 해를 보내고 우리는 2001년 다시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오이리트미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당시 한국 관객들에게는 오이리트미 예술이 마치 저희에게 한국 문화가 아주 낯설 듯 아주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2016년 1월 저는 이정희 박사의 초대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와 발도르프 학교 담임 교사 양성과정을 위해 오이리트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방동에서 교사들과 만나 즐거운 수업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즈음 저는 중국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 과정을 준비 중이었고,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도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여러 차례 대방동과 부천에서 오이리트미 워크숍을 가졌고, 이어서 같은

해 7월과 8월에 걸쳐 전문교사 과정의 예비자를 위한 집중 코스를 가졌습니다. 약 40명의 참여자가 보이는 열정에 저는 놀라고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이 저에게 의미 있는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런 열정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

니다. 2017년 1월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의 개관과 함께 드디어 우리는 5년 과정의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교사 양성과정은 7년이란 세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긴 여정에서 12명이 남은 것은 저에게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졸업 공연 무대가 2022년 4월 부천 오정아트홀에 마련되었고, 관객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무대를 감상했습니다. 객석의 분위기가 인지학센터에서 20년간 전개한 발도르프 교육 운동의 역사를 증명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은 차분하게 오이리트미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마무리는 이정희 박사를 비롯하여 이창미 센터장과 사무실 선생님들의 뒷받침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스에서 충실한 통역과 한국어 오이리트미 파트를 담당한 한미경 선생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이리트미 전문 교사

미하엘 레버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 책임교수)

양성과정이 한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기까지 동료 하이오 테커 교수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전문과정을 마친 오이리트미스트들이 자신의 책임감을 발휘하리라 기대합니다.

옛이야기는 또한 이렇게도 끝납니다. “이들은 함께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한국 오이리트미스트들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

2022년 10월, 슈투트가르트에서 미하엘 레버 Michael Leber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 -마법 혹은 기적 같았던 7년의 시간

한미경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 지도교수)

발엔 매끈한 갈색의 마로니에 열매들이 채이고, 안개에 휩싸이는 날이 많아지는 늦가을. 파란 하늘에 빨간 보석같은 감이 보이지 않더라도 제 마음은 항상 충만하고 따뜻하고 힘이 넘칩니다. 가끔 안개가 짙게 내려앉으면, 이런 날 홀로 고독과 싸우던 전혜린이 떠올라 그녀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해야 했던 그녀를 생각하면, 내 안에 피가 뜨겁게 흐르고 사랑과 사람에 대해 강한 믿음을 키워준 지나간 7년의 세월에 대해 저는 정말로 고맙다고 여러 번 되뇌곤 합니다.

7년 전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이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예비 학기를 시작할 때 과연 이 항해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돛단배를 띄우며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려 출항하는 것과 같았고, 설령 지구가 둥글어서 더 항해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원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가는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이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미하엘 레버 교수님이셨어요. 저나 다른 오이리트미스트들은 외국의 오이리트미스트 양성기관에서 매일매일 4년간 연습하며 졸업을 했으면서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

에, 1년 3회의 블록수업과 주말 연습만으로 정말 한 명의 보통 사람을 오이리트미스트로 변신시킬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거지요. 형식적으로 굳어진 체계 속에서 키워진 사람들은 새로운 예술형식이 싹틀 때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생기와 창조력을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그 예술의 정신적 핵심을 가져오지 못한 것임을 모른 채, 더 멋진 무대, 더 멋진 경력 같은 게 필요하다고 헛발질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레버 교수님의 강한 확신을 온전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법같은 혹은 기적같은 수업, 수백 번의 기계적 연습으로도 안 되는 것을 단 한 번의 정신적 어루만짐으로써 띄워 주는 그런 순간들을 통역자로서 수업을 동

행하고 경험하면서, 저의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수만 가지 판단과 제 몸의 고단함을 다 내려놓고 이 모험을 끝까지 돕자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 박사님께선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에 대한 아주 순수한 신념을 갖고 계셨는데, 당신이 인지학센터를 일구어 내고 여러 가지 곤경을 헤쳐 나가면서 얻은 그 신념 또한 이 전체 과정이 꼭 결실을 이루리라는 예언의 바탕이 될 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배우러 오신 분들의 엄청난 흡수력이었어요. 거꾸로 교수님들이 놀라워했지요. 슈투트가르트의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수십 번 연습을 시켜도 안 되던 것이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 학생들에게는 단 하루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니까요. 이창미 센터



장게서 해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교육 과정 주변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그 말씀은 정말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돌아보면 이토록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시작했어도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았던 7년이었습니다. 사연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안타깝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 속에서 내려놓고 받아들이면서 목표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되돌아보니, 참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이, 그 공간이. 그 때 나누었던 이야기와 미소들이. 그때의 웃음들이. 사랑이 넘치고, 항상 은은한 감동이 머물던 그 시간이 정말 그림습니다.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에서 함께 오이리트미를 하던 모든 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졸업하는 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려봅니다. 수업하시고 통역하셨

던 분들을 떠올려봅니다. 수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던 고마운 분들을 떠올립니다. 마포 인지학센터의 2층, 6층에서 늘 볼 수 있었던 수공예 인형과 정겨운 꽃꽂이가 떠오릅니다. 연습 중인 다샤 선생님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던 쉬는 시간을 떠올립니다. 건물 1층의 편의점과 바로 이웃에 있던 카페를 마음 속으로 둘러봅니다. 주변에 하나 둘 늘어나던 커피숍에 들러서 정겨운 이야기도 나누고, 경의선 기차길을 따라 난 산책로에 벚꽃 잎이 비처럼 내리던 봄 길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들이 언제 또 올까요.

이제 우리는 모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오이리트미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오이리트미스트로 살아갑니다. 남은 인생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얻는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사랑과 진실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 이 경험을 저마다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아가는 한, 오이리트미스트인 우리들은 누군가에겐 희망이라 불릴 것이고 빛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이란 이름으로 만났던 모든 분에게.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 2기 재학생 인터뷰

1.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수여 발도르프 어린이집 교사로서 유아교사 연수에 참여했다가 처음 접한 오이리트미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3단계 걸음을 걸을 때였어요. 주위의 많은 교사 무리 속에서 제가 끝없이 먼 미지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의 오이리트미 내한 공연을 위한 준비와 진행을 도우면서 힘들지만 긴장과 설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공연을 통해 '오이리트미가 좋다'는 마음이 들었고, 공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뿌듯했습니다. 2016년 인지학센터에서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나 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오이리트미를 통해서 단단하게 서는 저와 만나기를 기대하며, 진지하게 배우고자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영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오이리트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어떻게 움직임으로 표현할까? 이런 질문이 저를 예비학기 과정으로 이끌었습니다. 7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되돌아보니 그 질문에 대한 답 이상의 것을 저는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계연 큰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되면서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알아보았고, 그 교육에 대해 알아보려는 마음에 인지학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지학센터의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을 수강하면서 오이리트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강의실에서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으로 둘러서서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여보았지요. 그날 저에게 작은 감동이 일면서 오이리트미를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당시에는 한국에서 오이리트미를 배울 길이 없어서 독일 유학을 생각했었는데 이정희 선생님이 유학을 말리셨어요. 그리고 일 년 반 후에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하 동경. 오랜 시간 동안 오이리트미의 길로 저를 안내하던 말입니다. 교사 연수에서 오이리트미를 만났고, 이후 오이리트미를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2015, 2016년 부천자유발도르프 학교 주최로 열린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의 오이리트미 내한 공연에서 총괄 책임을 맡으며 레버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에 입학하였고, 한국에서 졸업한 오

이리트미스트가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교사 양성과정에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구기임 학업 과정 전체가 긴 시간이 아니라 어떤 찰나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과정 전체를 마치면서 우리가 과정을 출발할 때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주아 무대에 오르기 전이 가장 긴장된 순간이죠. 공연 시작 직전 관객들은 웅성 웅성하고 공연단 모두는 커튼 뒤에 함께 모여 고요하게 시작합니다. '나는 말을 생각한다.'로 시작하는 슈타이너의 시를 낭송하며 하나가 되는 가슴 뭉클한 순간, 레

버 선생님의 눈빛으로 시작하는 동작은 매 공연 시작 직전에 우리를 수호천사와 동행하게 합니다. 집중과 긴장 속에 공연을 마치고 나서 커튼 뒤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고, 그때 "모두 잘했어. 수고 많았어."라며 천사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깊은 곳에서 사랑의 눈물이 나옵니다.

조소영 매 학기가 끝나면 크고 작은 발표회와 공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많이 떨고 긴장하여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렸지만, 끝내고 나면 뿌듯함과 아쉬움이 공존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미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름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견이 하나로 조율되지 않아 오랜 시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해 정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고 마음 아파하는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날 졸업시키기로 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오이리트미가 제가 가야 했던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공동으로 작업했던 모든 과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가끔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과제를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쁜 일인지를 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자 오이리트미를 배우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공연에서 실수했을 때와 되지 않던 동작은 연습을 통해 결국 해냈을 때입니다. 졸업 단체 공연 곡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을 연습하고 난 후 쉬는 시간에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해 주시는 다사 선생님께 '손가락이 아프지 않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가슴에 손을 올리시며 손가락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음과 동선만 틀리지 않기에 급급했던 저는 음악을 먼저 느끼고



음을 생생하게 공간에 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복해서 계속되는 연습에도 불구하고 매년 온 마음으로 피아노를 쳐주신 다사 선생님의 예술성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3. 오이리트미 공부를 하면서 본인에게 변화된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이미영 저는 언어 오이리트미를 공부하면서 전보다 자연에 대해 아름다움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길가에 핀 꽃, 무리를 이루며 올라오는 어린 새싹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나하나 그 모양과 빛깔이 다른 것들을 새삼 발견합니다.

천경자 '하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주아 '진정으로 나를 만나다.' 그전에

만났던 세상은 주변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면, 오이리트미를 만난 나는 내가 스스로 움직이게 된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의 신체, 나의 마음, 나의 정신을 돌보며 생각한 것을 행동하고, 행동한 것을 느끼고, 느낀 것을 생각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눈에 띄는 변화는 거울을 보지 않고도 나를 인식하며 스스로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폐와 심장이 약해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에는 긴장이 가득하고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수평이 맞지 않아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

문지윤 동기들과 함께 작업하고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관점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리트미를 하는 것이 곧 나를 수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소영 오이리트미를 공부하기 이전보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긴 것 같고,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예술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김승미 나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나에 대해 건강한 긍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점까지 포함하여, 나는 '온전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편협하고 부족한 존재였던 과거의 나를 미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포함하여 '인간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존재'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이리트미 과정에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며 허물없이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저는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해 갈 것입니다. 동시에 더 오래전부터 제 곁을 지켜 주던 고마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저에게 주어진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삶을 통해 받았던 그들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기임 "무"와 "고요" 속에서 "유"를 찾고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김계연 여럿이 함께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음 편하게 말이지요.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본질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맑은 일들을 해내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이리트미는 세상의 많은 일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그런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타인과 세상을 향한 인식과



나를 향한 인식, 이 두 가지를 겸하면서 조화롭게 같이 가는 길을 오이리트미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박수어 유아 교사로서 아이들과 생활하며 오이리트미 학업을 병행해 왔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저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아 교육 기관에서 중요시되는 리듬 생활도 물 흐르듯 더욱 자연스럽게 공간에서의 움직임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져 불협화음적인 요소가 없어졌어요. 아이들과의 교감도 잘되어 아이들과 공간에 있을 때 흐름이 섬세하게 잘 느껴지고 아이들의 영혼과 조화롭게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알고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대로였지만, 저는 오이리트미를 배우면서 비로소 저 자신이 조율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이리트미 교사 한 사람이 공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

편에 자리하고 있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영혼적인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영혼 작업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스스로 조화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지선 많은 동기와 생활하면서 나와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이들과 마음을 모아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끔 되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된 지점은 나와 많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그럴 수도 있다.'라며 마음의 큰 동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이 창조되고 감동적인 시간이 있으니 그로 인해 오이리트미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하 어린이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과 경외로 세상을 만나며, 사랑 그 자체이며 빛입니다. 오이리트미를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들처럼 되고자 노력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합니다.

신인자 졸업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껏 해 왔던 오이리트미의 진정성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언어와 음악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오이리트미라고 입으로만 말했을 뿐, 그것을 정말 느끼고 깨달아서 오이리트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눈앞에 계신 교수님들의 동작과 움직임을 흉내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껏 나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적당히 칭찬을 들으며 잘난 척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에게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무거움을 소중히 여기며 더 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경험하고 발전해 가는 인간이 되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4. 오이리트미스트, 오이리트미 교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지윤 일단,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일에 많은 힘을 쏟고 싶습니다. 아울러 예술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기임 창조적인 놀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즉 아이들 속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들을 얻고 그것을 통해, 그 힘으로 오이리트미를 내적으로 더 심화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계연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료와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아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2기로 들어와 함께 배우며 공연할 분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학업이 계속 이어져 졸업하게 된다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주에서 오이리트미 수업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박수어 동화 오이리트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졸업 공연을 위해 여러 가지 작품을 연습하였는데, 그중 동화 작업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작업하여 무대에서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화 오이리트미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이야기로 들어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작업입니다. 동화가 가지고 있는 정신성을 무대라는 공간에서 오이리트미를 통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화는 관객이 쉽게 이야기 속으로 동화되어 함께 느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미디어

노출과 적절하지 않은 자극을 많이 받는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동화 오이리트미 작품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이리트미 교사로서 아이들과 수업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있어요.

천경자 오이리트미스트로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함께하겠습니다.

김승미 당분간은 좀 쉬면서 개인적인 삶을 정돈할 계획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적당한 때에 저를 찾아오는 일들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리트미로 성인들과 만나고 싶어서,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것이 언제쯤일지, 개인 작업이 될지, 공연을 위한 그룹 작업이 될지, 또는 일반 성인들을 위한 동호회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한국 시와 한국의 음악을 오이리트미로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조소영 앞으로도 오이리트미 교사로서 학교와 어린이집 아이들과 꾸준한 현장에서 만나 함께 웃고 즐기는 수업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위지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금은 병아리 교사이니 오이리트미 교사로 잘 안착해서 평생 오이리트미스트로 살아가는 것.

신인자 기회가 있다면 예술 오이리트미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오이리트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정하 아이들이 저를 오이리트미의 길로 인도해 주었고, 저는 제 운명을 아이들 덕분에 만났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오이리트미 선물을 담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리트미 공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오이리트미가 발도르프 교육의 꽃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외형적으로 공연을 통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



다. 공연으로 꽃을 피울 때 그 향기가 공간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이리트미 공연은 서로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정신적 힘이 있음을 그동안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오이리트미가 한국에서 하나의 교과목을 넘어서서 예술로 승화된 모습으로 자리잡으면 좋겠습니다. 구석구석 아름답게 잘 어우러지는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숨 쉬고 싶고, 이곳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살만한 땅이었으면 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막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더욱 공동의 정신적인 힘을 형성해내는 오이리트미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구체화되는 데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5.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과 인지학 센터, 교수진 또는 동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김계연 한국에서 독일어와 정교한 한국어로 인지학과 오이리트미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미하엘 레버 선생님, 하이오 테커 선생님이 칠 년간의 담임교사가 되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이 긴 여정에 교수와 통역자로 동행해 주신 한미경 선생님, 속앓이를 마다하지 않고 중간 다리가 되어주신 이정희 선생님과 이창미 선생님, 실무를 맡아주신 최은영 선생님과 허지혜 선생님, 그 외 여러 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갖가지 모습으로 함께 한 동기들에게 고맙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세상의 갖가지 인간상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이리트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고 조화롭게 서로

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두 고맙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여 3학년 때 레버 교수님과 상담에서 이정희 박사님, 한미경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상태는 오이리트미 학업과 어린이집 교사를 병행하는 것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푸념 섞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교수님은 조금 더 힘들 뿐이지 졸업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면서,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졸업하면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지금 새로운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 시작점에 설 수 있도록 교사 과정을 열고 지원해 주신 인지학센터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지도해주신 미하엘 레버 교수님, 하이오 테커 교수님, 한미경 선생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7년 동안 피아노 반주를 해주신 다샤 선생님과 동기들에게도 함께해주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 함께 힘을 응원합니다. 🍷



오이리트미 졸업 공연을 마치고

김계연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졸업생)

“엄마, 엄마가 모차르트 음악을 같이 하면 좋겠어.”

마지막 공연 날 아침, 아이들이 나에게 말했다. 고민스러웠다. 아, 과연 오늘 내가 단체 작품에 설 수 있을까? 그럴 힘이 있을까?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장기간 연기되었던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학생들의 졸업 공연이 우여곡절 끝에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에 걸쳐 부천시 오정아트홀에서 열렸다. 그때 나에게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쳐 있었다. 졸업 공연 직후 예정된 부산으로의 이사, 아이들의 전학과 마무리해야 할 여러가지 일거리, 코로나 후유증과 독감 등... 올봄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가 많은 시기였다. 결국 나는 공연을 앞두고 몸살을 앓으면서 기력이 달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몇 날에 걸친 총연습은 물론 무대 총연습에는 서보지도 못했다. 결국 단체 공연에서 빠지기로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나는 선생님과 동기들에게 아주 미안했다. 한 사람이 빠진 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더 힘을 내야만 메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다.

공연 첫째 날은 공연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쉬면서 동기들을 응원했다. ‘여러분, 미안해요.’ 하고 되뇌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같이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전날 공연장 객석에 혼자 앉아 바라보던 리허설 장면을 상상하며, 친구들이 행사를 잘 치러 내기를 빌었다. 그날 저녁, 공연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다.

둘째 날, 나는 솔로 무대에만 오르기로 했다. 오후에 있는 내 솔로 작품 순서에만 나가서 가볍게 몸을 풀었는데, 숨이 찼다. 동기들은 괜찮라며 나를 걱정해주었다. 당신들은 내 뒤통까지 채워주고 있는데 말이다. 가슴 한 쪽이 찢어질 듯 울렸다.

이날은 가족과 친구들이 공연장을 찾아와서 응원해 주었다. 거기에는 친정어머니도 계셨다. 어머니는 내가 오이리트미를 공부하는 동안 세미나 때마다 서울에 오셔서 손주들을 돌봐 주시고 살림을 맡으셨다. 몇 년 전 건강이 나빠지신 뒤로도 언제나 와서 나를 도와 주셨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이였다. 어머니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면서도 내가 오래 공부하고 유학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가끔 한숨지으시는 것만 같았다.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몰라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오이리트미 발표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어머니를 초대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머니에게 그간 배운 것을 정리하는 무대가 있으니 보러 오시라고 했다.

둘째 날 작품이 다 오르고 무대에 막이 내려 관객석이 있던 어머니가 나에게 환한 얼굴로 다가와 말씀하셨다.

“와, 정말 멋있었어.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나? 엄마는 까맣게 몰랐잖아. 이모도 와서 보면 좋았을걸”

어머니가 참 기뻐하셨다. 어쩌면 모든 게 내 걱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웃어 주시는 게 참 좋았다. 단 하루뿐이었고 단 하나의 솔로 작품이었지만, 어머니가 이날 나를 지켜봐 주셔서 참 감사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마지막 날, 나는 모든 단체 작품 안에 있었다.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오늘 무대에는 엄마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며 기뻐하고 고마워하던 친구들. 이렇게 무대 위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니 나 역시 기쁘고 고맙다. 내가 힘들 때 함께 걱정하고 기다리고 격려해 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참 고맙다.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에서 얻은 게 참 많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 한국에서 오이리트미스트를 길러내기 위해 인고의 시간을 보내신 인지학센터 이정희 선생님 외 사무실의 여러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말이다. 말없이 아내를 응원해 준 남편, 모난 엄마를 잘 따라 준 딸과 아들, 그리고 무뎠던 딸을 이해해 준 어머니에게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렸다.

우리는 발도르프 학교의 8년 과정만큼이나 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말을 내디딘다. 🍷

오이리트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야스 미치코의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를 읽다가 ‘오이리트미’라는 낯선 단어를 처음 만났다. 고야스 미치코는 또 다른 저서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에서 “오이리트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하는 ‘의식의 예술’”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오이리트미 공연을 보게 되었고, 교사 교육을 받으며 오이리트미를 직접 해보니, 무엇인지 모르는 점은 여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동이 솟아올랐다. 그 뒤로 오이리트미를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고 하이오 테커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연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만남은 8년째 이어져 현재의 ‘과천 오이리트미 동호회’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순수하게 오이리트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오이리트미를 한다는 것은 인간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예술 행위였다.

2016년 여름,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예비학기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서울 오이리트메움이 문을 열었다. 나는 좀 더 전문적으로 오이리트미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2018년에 시작된 2기 예비학기에 참여했는데, 아쉽게도 2기 정규과정 입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예비학기 동안

에는 1기 과정의 수업인 동화 오이리트미 <팔죽할뎀과 호랑이> 연습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유명한 우리 동화여서 흥미롭게 지켜보았는데 학생들이 마치 공연을 하듯 능숙하고 여유롭게 동화 오이리트미를 해내어 감탄하며 보았다. 1~2년 사이에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다니 놀라웠다. 해마다 계속되는 공연에서도 점점 역량이 쌓여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생될 오이리트미스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었다.

드디어 이번 여름에 7년의 과정을 모두 마친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1기 졸업생들의 졸업 공연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시와 음악을 우리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졸업생들이 길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며 흘린 구슬땀과 인내와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

김혜정
(발도르프 교육문화예술 연구회 대표)

었다. 솔로 공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역량이 멋지게 드러났다. 이제 그분들은 무대에서 내려와 발도르프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오이리트미의 배움에 목말랐던 분들에게로 찾아 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오이리트미 강좌가 열렸고, 오이리트미 교사가 없어 수업을 하지 못하던 발도르프 학교와 유치원들이 오이리트미 수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곧 오이리트미는 사람들 사이로 날아다니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비상을 준비하고 실현해 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졸업을 해 낸 오이리트미스트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 모두 감사합니다! 🍀



2022 겨울 교사 아카데미

20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3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003년 여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여름에는 10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유아(0-7세)의 본질과 발달을 새롭게 이해하고 특수아동을 포함한 유아기의 발달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진행되는 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필수 학점을 포함해 9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2년 겨울 아카데미는 10기의 다섯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2. 1. 3(월) ~ 1. 8(토) 11:00-18:40

장소 온라인 (Zoom Live 강의)

교육이론

엘마르 슈뢰더 / 통역 이정희

감각론 심화

교수방법론

마리-루이제 콤파니 / 통역 이정희

영유아 그림의 해석

수공예

한은숙

탁상인형극 ("욕심꾸러기 고양이")

미술

손석심

그림으로 이해하는 아이 발달(0-7세)

음악

이윤옥

합창과 킨더라이어 연주

감각론 심화

감각론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이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감각 작용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감각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사, 부모들이 감각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염두에 두고 교육해야 합니다. 요즘 교육뿐 아니라 의학이나 생리학, 심리학 분야에서도 감각에 대해 상세하고 깊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이번 영유아 과정에서 다루는 감각론은 감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약간의 실험을 해 나가면서 감각론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각 기관의 발달은 3가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시감각의 작동은 생물학적으로 눈과 같은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감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감각 기관이 있어도 이 내적 기관들은 지각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물론 지각하는 내적인 기관이 있어야 감각 활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감각 기관들은 내적으로 존재해 있어도 지각 훈련 없이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각 훈련을 통해 감각의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는 감각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각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감각의 지각은 지속적으로, 어쩌면 일생 동안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인 감각이 빠르게 훈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훈련이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생활 환경은 감각 기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감각 기관이 여전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 면에서 이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감각 작용으로 무엇을 느끼고 알아차리려면 3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감각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감각이 지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신적으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감각의 감각 활동에서 출발했지만 의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감각 활동의 특성이란 무엇인가요?

감각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만납니다. 내가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닌, 내가 외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마주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특성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특성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작용에는 눈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감각인 눈을 통해 세상의 사물을 봅니다. 세상의 특성들,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려면 감각 기관인 눈에 빛이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나 스스로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

청각은 다릅니다. 무엇을 경청하고 잘 듣는다는 것은 영혼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나를 뒤로하고 그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

엘마르 슈뢰더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시감각의 활동에서는 눈으로 감각하는 과정에서 빛이 내 안에서 작용하게 합니다.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생물학적으로 눈이라는 감각에는 눈 안에 빛을 잡는 촉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감각의 작용에서 우리 눈이 무엇인가를 본다 했을 때, 그 빛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시각적인 작용을 통해 외부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

발도르프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색채를 사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유아 현장에서 아이들 시감각의 내적 작용을 면밀하게 이해하시면, 놀이감, 옷 색깔, 벽지 색깔 등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색상을 정할 때 교육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심지어 커튼의 색깔, 인형 옷의 색깔, 다양한 장난감을 비롯해서 환경에서 비중이 큰 가구를 선택할 때도 색채가 아이의 내면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영유아 그림의 해석

이번 테마는 아이들 그림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영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발달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유아 발달은 심리 발달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지학적인 관점으로 영유아기의 발달을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그림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들 그림에 어떤 법칙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보편적인 법칙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0~7세까지의 영유아 발달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신체, 영혼, 정신의 발달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아이들의 전체 과정을 다각도로 바라봅니다. 만 3세까지는 서기(걷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 세 가지의 발달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는 물론이고 유아들도 주변 환경을 강도 높게 흡수합니다. 아이의 감각이 주변 환경에 온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는 감각적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영유아기의 발달 과정은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진행되며 그것이 아이들의 그림에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팔과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

아이들의 놀이 발달에도 규칙이 있습니

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살펴보면 주로 기능 놀이, 탐색 놀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 3~5세 무렵을 교육학에서 판타지의 연령이라고 표현하듯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로 판타지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만 5세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놀이를 구상하며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을 놀이로 옮깁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 놀이의 종류는 실제 놀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판타지 놀이 중에 기능 놀이와 역할 놀이는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들 그림을 “그림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만 7세까지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아이의 언어가 유사한 과정으로 발달하듯이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웅알이 단계를 거칩니다. 아이들의 “그림 언어”를 관찰하면 아이의 언어 발달처럼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

우리가 유아 그림을 관찰할 때는 그 아이의 놀이와 연결하여 바라봐야 아이의 발달 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후 15개월 정도가 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쌓기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대상을 주로 위로 쌓아 올립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신체는 서고 걷기를 시도합니다. 즉 쌓기 놀이를 하는 시기와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 직립 보행을 시작하는 시기가

마리-루이제 콤파니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일치합니다. [...]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신체와 연결하여 기억합니다. 아이에게 모든 체험은 자기의 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아기에는 자신의 체험이 몸으로 각인되어야 기억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움직이면 탐색 놀이, 기능 놀이가 풍요로워집니다. [...]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2012년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1기가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의 8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디플롬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과 연계됩니다. 발도르프 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 발달(만 7-14세)에 맞는 교수방법론을 통해 현장 수업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22년 겨울 아카데미는 3기의 세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2. 1. 11(화) ~ 1. 16(일) 10:00-17:10 /
1. 28(금), 1. 29(토), 2. 4(금) 16:00-18:40
장소 온라인 (Zoom Live 강의)

교육학
엘마르 슈뢰더 / 통역 여성훈
청소년기 발달
교수방법론
김혜정
저학년 이야기 들려주기와 다시 이야기하기
신영주
식물학 (5~6학년)
김주아
에포크 수업을 위한 칠판 그림 (4~5학년)
예술
이윤옥
리코더 앙상블 지도법

청소년기 발달

스페인 시 한편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 곁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늘 잊어버리는 그 사람이다.
 내가 말할 때
 고요히 침묵하는 사람,
 내가 원망할 때
 너그러이 받아주는 사람,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사람,
 내가 숨을 거둘 때
 곳곳이 곁을 지킬 그 사람이다.
 히메네스 J. R. Jiménez, 1917

이 시는 우리가 내면에 있는 핵심을 어떻게 만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모두의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이 시에는 '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스페인 시인 히메네스는 1917년에 태어났습니다. 1930년대에 스페인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히메네스는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삶은 쉽지 않았지만, 이 시인은 민주적인 체제가 다시 들어설 때까지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에는 자신의 내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이 시를 시작으

로 발도르프 교육의 상급 수업과정을 풀어 보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학의 근간이 되는 인지학에서는 인간은 네 번의 탄생을 거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탄생은 물질적인 몸의 탄생입니다. 신체의 탄생에서 아이가 영혼적인 존재이고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7세 무렵 또 한 번의 탄생이 일어납니다. 슈타이너는 생명체 혹은 에테르체가 생후 7년이 지나면 생명의 원천에 작용하는 역할에서 풀려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힘의 구조인 에테르체는 자기 몸 안에서만, 혹은 내적으로만 작용하던 것이 밖으로 풀려나는 모습으로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물질적인 몸 안에서 갇혀 있던 생명체가 생명만 관장하고 있다가 풀려나면서 변형 생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형 생성이 사고력입니다. 다시 7년이 지나고 만 14세가 되면 영혼체 혹은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합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묶여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생의 의미는 묶여 있던 것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까지 유기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작용하다가 만 14세 이후에는 그것에서 풀려나서 다른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판단력이고, 또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동안 느슨한 상태에 있다가 이 시기부터는 강하게 공감하는 능력 혹은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청소년의 아스트

엘마르 슈뢰더 (통역 여성훈) 강의 발췌

랄체가 다른 활동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면서 생겨나는 다른 상태도 있습니다. 아스트랄체의 탄생은 신체가 성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성에 대한 호감과 같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만 21세 무렵이 되면 자아가 풀려나서 탄생하게 됩니다. 물질체의 출생 이후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변형 생성을 겪게 됩니다.

몸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신생아일 때는 머리의 비율이 전체의 1/4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지가 1/4, 몸통이 전체의 1/2정도를 차지합니다. 성장해 가면서 이 비례가 일정하게 변하게 됩니다. 만 18세 무렵이 되면 머리는 전체 신장의 1/8 정도가 됩니다. 다리 부분은 전체 신장의 1/2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이 변화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출생 이후 신생아 시기에는 머리가 강조된 머리 중심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해부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지의 역할이 매우 적습니다.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활동이 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기는 충분히 커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 신체 비례의 변화는 만 18세가 되면서 두드러집니다. 팔다리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머리의 활동이 멈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적으로 사지의 활동이 매우 커졌다는 말입

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청소년을 교육할 때 사지의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지 부분은 인간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의지와 밀접한 기관입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머리에 중점을 두지만,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사지에 크게 중점을 둡니다. 지금까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가 탄생하여 변형 생성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에테르체가 탄생하여 기억력과 사고력으로 변화하듯, 아스트랄체의 해방과 탄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영혼적인 능력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은 아주 안전하고 친절하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러 아이의 아스트랄체인 영혼체가 판단력과 비판 능력으로 변하면서 달라 집니다. 따라서 유아기 이후 초등학교 전반기 교육의 목표는 순박한 아이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예술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고 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 14세에 아이들에게서 아스트랄체가 해방되어 변하게 될 때 우리는 판단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하고, 나아가 사회적인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



1, 2학년 이야기 들려주기와 다시 이야기하기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발도르프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입학식에서부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전에 이루어지는 주기 집중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 년 내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고, 교사에게는 가장 힘을 들여 준비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빛은 온통 교사에게 모여들고, 숨소리조차 찾아들며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가 갖는 힘을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 속에서 이야기가 가진 근원적이고 깊은 지혜가 아이들의 내면으로 흘러듭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내면적으로 풍부한 상을 떠올리고, 이렇게 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이후에 상상력과 추상적인 사고력으로 발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과 기억력, 그리고 이해력 또한 발달합니다. 주기 집중 수업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듣는 시간에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함께 아이들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 그 내용은 소화되고 변형되어 다음 날 다시 아이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사는 이를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의 가장 앞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기는 날마다 이야기 들려

주는 시간의 앞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용, 일어난 일들,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들려주어 아이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머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장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서 능동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은 하지 않고 말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연결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이야기의 상을 얼마나 선명하게 잘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고르고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상을 그려 보고 예술작업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교사 내면에 이야기와 연결점이 생기고 풍부한 상이 생겼을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발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각각의 교육 과정은 아이들의 발달에 준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야기 들려주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 각 학년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1학년에서는 동화와 자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화는 오랜 옛날부터 구전되어

김혜정 (발도르프 교육문화예술 연구회 대표)

강사 후기

온 이야기들로, 인류의 지혜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학년 아이들은 아직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듣는 동화는 아이들이 아직 머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혜의 정수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자연 이야기는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식물의 특성을 법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의인화한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자연 이야기는 자연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생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2학년에서는 우화와 전설, 성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하나였던 세계에서 양극적인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땅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는 이야기도 이제 특정한 지명과 인명이 나오는 전설과 성인 이야기, 인간의 다양한 영혼적 특성을 동물의 행동에 빗대어 묘사하는 우화를 듣습니다. 먼저 우화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인간 안에 동물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이야기를 들 때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신성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신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태도를 발달시켜 갑니다. 우화를 들려줄 때는 사전에 우화의 느낌을 잘 담고 있고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우화를 들려주도록 합니다. 🍀

2022 여름 교사 아카데미

28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36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003년 여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여름에는 10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유아(0-7세)의 본질과 발달을 새롭게 이해하고 특수아동을 포함한 유아기의 발달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진행되는 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필수 학점을 포함해 9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2년 여름 아카데미는 10기의 여섯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2. 7. 28(목) ~ 8. 4(목) 08:40-18:30

장소 온라인 (Zoom Live 강의)

교육이론

파트리치아 베르크만 / 통역 이소윤

유아 관찰법

교수방법론

파트리치아 베르크만 / 통역 이정희

축제 행사와 계절탁자 꾸미기

파트리치아 베르크만 / 통역 이정희

의미 있는 활동

수공예

한은숙

인형극

예술체험

손석심

색채의 이해

이윤옥

노래 부르기



유아 관찰법

유아 관찰은 아이와 교사의 내적인 관계 맺음이 긴밀하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교사는 늘 질문합니다. 나는 아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

해바라기 씨에서는 해바라기 꽃이 핀다는 확신이 있지만, 유아들이 성장하여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18세, 19세가 되었고, 이 아이들은 지금 자신의 미래 방향을 찾고 시도합니다. 제가 이따금 “어떤 직업을 찾고 있니?” 하고 물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속도에 맞게 찾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슈타이너의 다음 인용문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 전체는 식물과 같습니다. 식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미래 상태를 자기 안에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겨우 잎사귀만 달려 있는 식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그 가지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식물은 이미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식물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탐구하려는 사람은 꽃과 열매 같은 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식물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 안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관해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숨겨진 본성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중략) 우리 시대는 표면에 나타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외형적 관찰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파고 들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물의 경우는 문제가 훨씬 단순합니다. (중략) 그런데 사람의 삶은 오직 한 번만이고, 그 삶에서 장차 무엇이 피어날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안에서 피어날 것들은 지금 겨우 잎사귀만 달려 있는 식물에서 피어나게 될 꽃처럼 사람 안에 소질로 존재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발도르프 아동교육》, p.30-31

… 아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이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장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 또는 교육자는 아이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잘 관찰하여 그것들을 알아내도록 노력합니다. 그 도구는 슈타이너가 이야기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입니다. 4구성체의 발달을 통해 아이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질을 알아내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4구성체를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봐 주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관계 맺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그 사람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험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지?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

파트리치아 베르크만 (통역 이소윤)

강의 발췌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봐 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현장에서 아이의 적응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교사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면, 거기서 좀 더 아이의 본질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들은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명백하게 말할 수 없는 아이의 본질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조금씩 발견해야 합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그 수수께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아이가 수수께끼로 있는 한 우리는 아이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너는 누구니?
2.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니?
3. 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이런 질문을 하며 아이들을 살펴보고 관찰해 나갑니다. 교사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축제 행사와 계절탁자 꾸미기

계절탁자는 단순한 실내 장식이 아닙니다. 계절탁자는 계절의 자연물을 모아 꾸미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으면 현대인의 생활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여름에는 밖으로 나가 발산하고 겨울에는 안으로 집중하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에는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내쉴 때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사람의 호흡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때 들숨에서는 머리 쪽이 느껴지고 날숨에는 사지가 느껴지듯 그 특징이 다릅니다. 이 원리를 잘 터득하면 연중의 축제 행사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먼저 절기에 따른 축제 행사와 계절탁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알면 형식이나 단순한 장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

각 나라마다 절기 축제는 다양합니다. 지구의 순환이 태양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토대로 계절탁자를 꾸밀 때 그것이 의미를 지닙니다. 절기 행사 역시 여러분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깊게 만나야 각 절기에 맞는 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절기의 배경과 의미를 잘 이해하면 아이들과 그 행사를 일상 속에서 즐겁게 치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인지학의 명상시인 <영혼달력>을 통해 우주와 연결된 지구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하루 일과

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영혼달력을 읽으면 자연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잠언은 깜깜한 칠월 같은 시기에도 또 다른 희망이 있고 빛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늘 이 명상시를 음미하면, 자연과 연결된 의식이 깨어나고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됩니다. [...]

현재 서양의 축제 문화의 배경은 그리스도교적인 요소가 지배적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문화는 대부분 켈트족의 문화를 수용한 것입니다. 한국은 달의 주기와 연결된 음력을 사용하지만, 세계 공통의 문화 요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 맞는 현지화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려면 음력 절기가 자연 순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절기 행사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일 년의 리듬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름에 감각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내면으로 점점 깊어지다가 부활의 시기인 봄이 오면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계절은 대조적입니다. 여름이 우리의 감각이 밖을 향해 열려 있어 즐겁고 신나는 계절이라면, 겨울에는 우리가 영혼 안으로, 내면으로,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을 관찰해도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여

파트리치아 베르크만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름이 지나면서 가을로 들어설 무렵에 아이들은 방방 뛰며 발산하는 것처럼 놀니다. 그러다가 컴컴한 겨울 터널을 통과하면 아이들이 부쩍 성장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가 지나면 아이들이 어느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일년 주기가 여러 번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은 유치원을 떠나 학교에 들어 갈 수 있는 성숙 상태를 맞이합니다. 취학 준비는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절기와 자연 리듬을 어떻게 느낄까요?

절기 축제가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하면서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상업적인 분위기에 물들지 않도록 어른이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의 순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년 내내 딸기를 먹는 등 계절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혼란 상태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지 않은 어른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부대끼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이 사라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발도르프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자연의 순환을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어른들도 오래도록 자연의 순환을 잊고 생활하면 병이 납니다. 교사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이해하시면 교사 스스로 일상 생활을 리듬에 맞게 가꾸어야 건강합니

다. 하루 생활에서 자기 관리가 이루어져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

계절탁자는 그런 의미에서 실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계절탁자를 장식으로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고려된 계절탁자가 작품으로 실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절탁자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식으로 계절탁자를 꾸며놓으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계절탁자를 만들 때에는 이러한 많은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의 연수에서 계절탁자에 대한 책을 구입해 와서 그것을 흉내내어 귀엽고 아름답게 꾸며 놓게 됩니다. 그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지하게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계절탁자를 꾸며야 합니다. 계절탁자에 무엇을 놓을 때는 왜 놓았는지,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구상하고 꾸미면 좋겠습니다.

계절탁자를 꾸밀 때 휘장을 두르시면 안 됩니다. 휘장을 두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인 것처럼 보아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연극을 할 때 두르는 휘장 뒤에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휘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계절탁자는 진정성이 담겨있는 밖의 자연을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이 아니라 직접 자연을 느끼도록 실내에 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형극을 할 때는 무엇인가 천으로 덮어

씩워 두거나 가려 놓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면 시작하는 것이고 덮어 놓으면 끝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천으로 휘장을 하거나 커튼처럼 가리는 것은 계절탁자에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계절탁자에 요정이라든가 예쁜 것을 장식으로 놓고 싶어하고 또 놓아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강박입니다. 사실 자연 정령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물질로 상상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운을 이야기할 때에는 태양과 바람과 안으로 들어오는 대지의 호흡을 통해서 이러한 산물들이 나옵니다. 이 호두를 요정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상상에 있는 난장이나 땅 요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대상물일 뿐,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계절탁자의 장식품이 되

어서는 안 됩니다. 예쁜 요정은 여러분들 책상에 놓고 장식하면 됩니다. 아이들의 계절탁자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의미 있는 활동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어른의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모방하여 자신의 행위로 옮길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은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늘 움직이려는 아이들의 욕구를 고려하면 어른의 활동은 교육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장에서 어른들이 손을 움직여 하는 활동 과정을 아이들이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이 보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콩 고르기 활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콩으로 밥을 해 먹거나 죽을 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은 천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교사의 의미 있는 활동이란 하루 생활 속에서 어른이 무슨 일이든 진지하게 행하고 아이들이 그 일의 과정을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됩니다. 교사가 이런 일을 할 때 옆에서 아이들이 구경하다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하면 좋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교사를 거든다고 해도 그 일을 잘 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하는 활동에 아이들이 원하면 늘 참여시킵니다. [...]

교사가 바느질을 하면 아이들은 직접 하지는 못해도 옆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활동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과 아이들이 구경하는 일로 분류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활동에서 결과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활동 그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의 과정을 볼 수 있을 때 아이가 그 활동을 모방합니다. 그 일 자체를 아이가 모방하므로 어른은 그 일에 진정성을 담아 행해야 합니다. 행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진짜 행위이어야 합니다. [...]

어른이 아이 앞에서 하는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행하는 일상의 일 그 자체를 진심으로 할 때, 이것이 의미가 담긴 활동입니다.

일상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나면 당연히 놀잇감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놀잇감을 정리할 때 교사가 그 행위를 진심으로 하면 아이들은 교사의 그 행동을 모방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가 정리 시간에 기꺼이 진심을 담아 움직이면 아이들이 교사를 따라 정리에 참여합니다. 교사의 심리 상태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따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보기와 모방의 교육 원리는 어른의 행동에 진심이 담겨있을 때 아이와 내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



파트리치아 베르크만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이는 어른의 행동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즐겁기만 할까요? 상황에 따라 어른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이런 강요된 상황처럼 자신이 하는 행동에 진정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 활동은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자는 무슨 활동을 하든지 내가 하는 행위가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기꺼이 진심을 다하는 자세로 행동에 임하게 됩니다. [...]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말하는 성인의 “의미 있는 활동”은 이런 질문들과 연결됩니다.

- 1. 교사가 진정성을 담아 활동하고 있는가?
- 2. 일상의 삶과 연결된 활동인가?
- 3.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아 진지하게 행동하는가?
- 4. 아이들이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인가?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전문과정 수공예 수업을 마치며

한은숙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연구원) 강사 후기

2022년 여름 10기 마지막 학기가 다행스럽게도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의 대면 수업에 기대가 되었고, 주제를 정하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 바쁜 일상을 보내실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생각하다가, 한국 전래동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인형극으로 제작, 시연하기로 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10기 선생님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형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인형극 등장인물을 만드는 손질이 매우 익숙해 보였으며,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수공예 수업을 했던 경험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입생으로 참여하신 선생님 중 수공예 작업이 처음이신 분도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친 할머니에게 한국의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인형극을 제작하면서 어려운 동물 만들기에 도전하고, 그 외의 물건들을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모양을 고려하여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면서 그 사물들의 쓰임새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국 전래동화이기에 할머니 인형에게는 양모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에 맞는 면천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히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형극 무대를 꾸미고 시연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어 판타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수공예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획했던 만큼을 제시간에 끝내지 못하고 주말 연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6학기 수공예는 준비한 내용을 제시간에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인형극 시연은 했지만 각자 연습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돌아가신 후 시연 연습을 나름대로 하

서서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셨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연수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수공예 수업을 하면서 각자 느낌이 들어가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며 애써 만든 인형극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의 얼굴에서 생명 감각이 활동하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색채의 이해

색채로의 여행
 눈이 태양과 같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들 속에 신의 힘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신적인 것이 우리를 배후시키겠는가.
 -플로티노스Plotinos (205-270년)



색채를 경험한다는 건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색채를 통해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빛을 통해 경험하는 색은 훨씬 강렬하고 내면에 울림을 제공합니다. 습식 수채화 작업은 물빛과 만나 우리를 '빛나는 색채' 경험으로 이끕니다.

이번 여름 영유아 아카데미는 미술 방법론 대신 습식수채화를 통한 색채의 본질 체험에 집중했습니다. 1차 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만나고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주황, 보라, 초록을 각각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색채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색과 형태가 변해가는 과정을 즐기며 색채의 분위기에 빠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술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 그리고 '조화로움'이 무엇인지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 그림을 그

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망설이게 되고, 내가 잘 그렸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그려 보고 많이 작품을 감상해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차분한 것 혹은 조금 더 역동적인 것 등 작은 차이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더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가능해집니다. 내면으로 깊이 경험한 예술적 아름다움은 판단적, 물질적 아름다움을 넘은 정신적 차원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토록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 활동은 진지해야 합니다. 흥미 위주의 미술 놀이가 아닌 예술의 본질적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어야 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런저런 형태의 예술이 인간의 어떤 능력을 훈련하는 데 '유용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예술이 존재하는

을 초월해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곡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수업에서는 먼저 피아노 반주가 동반된 아름다운 곡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악기인 몸을 깨우고, 목이 아닌 온몸으로 노래하고, 호흡과 선율에 마음을 실어 밖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충실히 하였고 매 수업 마지막 부분엔 우리 가곡과 바로크 오페라 아리아로 충만해진 몸과 마음의 연장선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5

손석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연구원)
강사 후기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의 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예술의 힘은 정신적 차원의 아름다움이며 우리 삶과 연결됩니다. 본질적으로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슈타이너의 말은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카데미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발도르프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동안 자기 수련과 같은 색채 작업에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색채를 알고자 노력하고, 좀 더 아름다움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림을 대하는 태도는 진지했으며, 우아한 움직임과 태도를 가졌고, 때론 강렬한 의지적 힘을 보였습니다. 첫날의 서투름은 조금씩 자신감으로, 혹은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변해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모습은 앞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여름 영유아 아카데미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윤옥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연구원)
강사 후기

도 분위기의 노래를 불러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쁘게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주신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노래 부르기

2022년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 과정 노래 부르기 수업에서는 몬테베르디 작곡의 바로크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 중 아리아 <Pur ti miro>와 박태준 작곡, 이은상 작사의 우리 가곡 <동무생각> 그리고 영유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5도 분위기의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치저있는 이 시기에 귀한 걸음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음악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대와 국경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의 마지막 학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

조안현 (김포 발도르프 해·꽃·별 원장)
수강생 후기

4년 전 발도르프 교육 현장에 근무하게 되면서 아카데미 첫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발도르프 교육 관련 도서를 열심히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바라고 찾던 교육의 희망을 보았고, 그렇게 첫 아카데미를 맞이했다.

그 당시 근무했던 발도르프 교육 현장은 공동 육아와 발도르프를 지향하던 곳 이었고, 대표 교사의 책임감, 현장에서 다른 교사들과 발도르프 교육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상당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내게 여름과 겨울 매 학기의 공부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독일어를 많이 들으면서도 전혀 낯설지 않고 친근했고, 교수님들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교사로서의 연륜을 배울 수 있었다.

아카데미에서 기본을 다지며 주말에는 다양한 환급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나가고, 다시 아카데미를 들으며 발도르프 교사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카데미에서 만나는 교사들로부터 타 기관의 사례들을 배우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현장에서 가지고 온 질문들을 강의 곳곳에서 풀어나 주시는 교수님들의 설명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해결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지가 되며 나의 실수를 깨닫게도 했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에서 만난 파트리치아 베르크만 교수님은 <의미 있는 활동>

수업에서 어른의 도덕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은 아이들의 자유놀이로 표현되며 그것은 아이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잘못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어른의 활동에 아이가 다가와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은 교사가 기꺼이 행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부터 일어난다는 말씀이 깊이 새겨졌다.

<유아 관찰법>에서는 아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교사가 아이를 바라보며 관찰할 때, 너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아이의 생활, 움직임 등 외적인 모습을 사랑과 존중을 담아 관찰하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교사의 공감 능력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축제 행사와 계절 탁자 꾸미기>는 자연의 흐름의 배경을 알고 교사의 내적인 감각적 능력으로 이끄는 것이며,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행하는 오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의 의미를 제 공할 때는 의미 없이 따르지는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수공예 시간에는 인형극 제작을 통해 인형을 처음 만들던 첫 학기 때의 내가 이번 학기가

처음인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나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술 체험의 습식수채화 그리기와 노래 부르기 수업은 교사 내면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시간이었다.

아카데미에서 큰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교사 교육에서 교수 방법론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과 달리, 발도르프 교사 교육은 언제나 인간으로서의 교사의 내적 치유와 성장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한 귀한 시간을 통해 회복된 힘으로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 준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6학기의 영유아 교육예술가 전문가 과정은 나를 발도르프 교육에 진심이 되게 했다. 앞으로도 나는 발도르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행복 한 교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2012년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1기가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의 8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디플롬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과 연계됩니다. 발도르프 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 발달(만 7-14세)에 맞는 교수방법론을 통해 현장 수업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22년 여름 아카데미는 3기의 네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2. 8. 6(토) ~ 8. 12(금) 08:40-18:30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6층)

교육이론

마르가레타 레버 / 통역 장은심

슈타이너가 말하는 발도르프 교육예술

교수방법론

마르가레타 레버 / 통역 오윤선

지리학

“교육예술”의 실제

한미경

오이리트미

신영주

움직임과 말하기

이윤옥

리코더 지도법



슈타이너가 말하는 발도르프 교육예술

마르가레타 레버 (통역 장은심)
강의 발췌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교육예술’이라는 단어를 강연이나 세미나 등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본래 18세기부터 사용된 말로, 루돌프 슈타이너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와 의사이자 아동 교육자인 야누시 코르차크(Janusz Korczak, 1878-1942) 역시 교육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야누시 코르차크는 개혁 교육과 관련하여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나치 수용소로 보내지는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는 교육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아이와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발도르프 교육학의 내용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개성과 가능성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고정된 교육’이 아닌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가는 것이 예술입니다.

교육예술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아이들의 전체적인 성장 발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는 각자의 개별성이 있는 동시에 큰 범위로 일정한 범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만 7세가 되면 이갈이를 합니다. 이어서 만 14세가 되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만 21세 때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만 21세 때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전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행동하는 의지, 내적 감성, 사고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육자는 고정된 죽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념을 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육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 스스로 생생한 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답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 태도를 섬세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

교육에서 고정된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성과 가능성을 지니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생생한 상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교육자는 아이들의 발달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찾아가는 교육예술가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에서 말하는 ‘예술’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도식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활동을 하기 전에, 아동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이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지 상태가 아닌 무수한 가능성과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과 어떤 성장 발달을



지리학

지금부터 지리학을 시작합니다. 슈타이너는 지리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지리학에 대한 개념들이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였지만, 슈타이너는 지리학이 발도르프 학교에서 잘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리학에는 여러 학문이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리학에 연결된 많은 영역을 끌어내어 다른 개별적인 분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학이 지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학과 마찬가지로 물리나 화학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년 후에 세워졌습니다. 독일과 싸웠던 영국이나 프랑스는 독일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리학을 통해 적대적인 이웃 나라를 배울 수 있었으니, 지리학은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인간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리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일어서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점점 자신의 주변 공간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갑니다. 또한 인간은 공간적인 존재인 동시에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시간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언어를 배우며 성장해 나갑니다.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라는 것은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지리와 역사는 중요하며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 세 살이 되면 다음 단계로 들어

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를 알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옆의 다른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지리 과목에 담겨 있습니다. 이진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리 과목은 아주 환상적인 분야입니다. 지리학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과목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면에 지닌 기쁨과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아이들에게서 내적 능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리 과목입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다시 12학년까지 위로 올라가는 U자 모양의 곡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탕으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지리를 어떻게 수업하는지 살펴보고도 하겠습니다.

우선 저학년은 교실에서 수업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산책을 갑니다. 밖에서 직접 내 주변의 지리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한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많이 산책하고 걸어다니면서 주변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학년 시기에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물방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

마르가레타 레버 (통역 오윤선)
강의 발췌

려줄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물방울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물방울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느 순간 작은 물방울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 여행할 시간이 되었네.’ 그러자 작은 물방울들은 빗줄기가 되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은 작은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들은 그 숲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내려 가서 다른 물방울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작은 샘물이 되었고, 계속해서 냇물이 되어 흘러내려 갔습니다. 이 냇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들은 커다란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바다에는 다른 물방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물방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태양이 물방울들을 따뜻하게 데워 주었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변형하며 많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감정 영역을 건드려서 감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생물의 대해서도 감정을 건드려 줍니다. 보통 잘 돌보지 않는 작은 생물들 중에서 지렁이 같은 것을 어떻게 돌보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 🌈

오이리트미

한미경 (서울 오이리트미예술원 지도교수)
강사 후기

영혼의 손뼉소리
겨울 산을 오르며 나는 본다.
가장 높은 곳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처럼 빛나고
얼어붙은 폭포의 단호한 침묵.
가장 높은 정신은
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
허영게 얼어터진 계곡과 계곡사이
바위와 바위의 결빙을 노래한다.
.....
육신이란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
헛된 휴식과 잠 속에서의 방황의 나날들.
나의 영혼이
이 침묵속에서 손뼉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면
어느 형상도 다시 꿈꾸지 않으리.
조정권의 산정모시1중에서

서울의 여름은 뜨겁다. 땀이 저절로 흐르는 기후 때문만이 아니라, 일제히 울어대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달구어내는 공기,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에 찬 셀 새 없는 걸음걸이로 달구어진 아스팔트가 내뿜는 열기이다. 이런 역동성이 넘치는 서울의 여름, 드디어 인지학센터의 발도르프 교사 아카데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길게 이어지던 온라인 수업에서 모처럼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그 중 예술 과목의 하나로서 오이리트미 강의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반가운 초대와 받고 나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입국 후 숙소에 도착한 후, 아직 오이리트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전체 참가자의 절반 정도라는 인지학센터 최은영 선생님의 안내를 받았을 때, 조금은 막

막하고 조심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마치 때 묻지 않은 순백의 캔버스 앞에 두고 서 있을 때의 그런 기분과 같은, 그런데 우연이었을까?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더니, 불볕더위의 바탕 위에 쏟아지고 내리치는 천둥·번개와 비의 리듬과 멜로디는 종종 나를 잠들지 못하는 밤들로 이끌고 갔고, 그렇게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문득 오랜 옛날 일반 공립학교 교사로서 발도르프 교사 아카데미를 신청했던 때의 내 자신이 떠올랐다. 연세가 지긋하신 독일 교수님들의 말소리에서 울리는 저음과, 오이리트미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피아노 선율이 안겨주던 심장의 떨림, 눈가가 살짝 축축해 오던 기억.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음악도 아니고, 호령하는 사람 소리도 아니고,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에 발을 맞추어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내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고 느꼈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선 오이리트미 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수줍게 짙었다.

16년 전의 일이다.

그 기억에 이르자 이번 여름 오이리트미 수업시간에 원을 만들어 단정히 서 계신 모든 참가자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나의 얼굴이 겹쳐졌다. 우리나라 한여름에도, 더 높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열음으로 하얗게 뒤덮인 겨울 산정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우리나라 한여름처럼 활기찬 삶의 한 가운데에서도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과 그 인생 굽이 굽이에 숨겨진 추억을 노래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고백만 안 했을 뿐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 인생의 어느 특별한 순간과 비밀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 래서일까? 오이리트미 시간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마법처럼 사랑스러우면서도 진지했다. 그 시간엔 우리 주변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다. 아름다운 시어, 멜로디, 목소리와 형태가 우리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도 아름다움이 충만해 갔고, 우린 말하지 않아도 행복했다. 물론 사람은 영원히 행복감에만 머물 수는 없다. 행복감이 썰물처럼 사라져간 뒤, 내면에서 허무와 공허 대신, 순수한 동기와 명료한 사고가 자리 잡는 것이 그전에 가졌던 행복감의 질을 나타내어 준다.

비장미가 흐르는 쇼팽의 곡과 조정권의 시를 오이리트미로 작업하며, 무엇보다 낮은 오이리트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름답게 움직이시는 참가자분들을 보며 내 마음에 고요히 깃드는 생각이 있었다. 사람의 인생은 비록 삶과 죽음 사이에 찰나의 순간처럼 놓여있지만, 그 기간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움과 추억과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비록 어느 한 날 육신이 스러지고 온 세상이 빙하처럼 얼어붙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영혼은 손뼉소리를 내며 크게 소리 치리라.

드높은 정신을 받아서 각성한 영혼은 얼어붙은 세상을 누비고 다니며 외치리라.

사람이여! 영혼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라. 🌈

움직임과 말하기 - 발도르프 에포크 수업에서의 리듬 활동

발도르프 학교 에포크(주기 집중) 수업에는 리듬 활동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Rythmischer Teil'(직역하면 '리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이 리듬 활동은 에포크 수업 2시간 중 일부를 차지합니다. 에포크 수업은 열기 의식(opening ceremony)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초를 밝혀 교실에 빛을 채우고 종을 울립니다. 이어지는 아침 인사와 아침시 낭송은 대표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기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리듬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는 수업 내용이나 해당 학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

한 예술 활동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일상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 의식이 깨어나기까지 아동들에게는 시간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배움은 최종적으로 사고 작용을 통해 개념으로 정립되는데, 사고 활동 이전에 몸과 감정이 순차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리듬 활동은 배움 준비를 하는 데우기(warm up) 과정으로 배움에 숨을 불어넣고 사고를 생동하게 합니다. 리듬 활동은 무엇보다 배움을 즐겁게 해줍니다. 리듬 활동의 주요 역할은 아동의 발



리코더 지도법

2022년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 과정 리코더 지도법 강의에서는 소프라노 리코더를 위한 3중주곡인 이탈리아 민요 "벨라밤바"와 러시아 민요 "자장기", 그리고 4중주곡인 프랑스 민요 "원탁의 기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면서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것은 단순히 악기 연습을 위해 곡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나라에서 꽃피운 인류의 문화 예술을 접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나라의 민요를

공부하는 것은 악기 연습 이상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예술 교육 안에서 음악교육, 음악교육 안에서 악기 교육의 의미 그리고 예술로서의 음악 활동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없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예술적 행위와 정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와 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했고, 그 소리와 음은 나의 의지로 구체적인 공간을 만들고 정해진 시간을 채운다는 것

신영주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센터장)
강사 후기

달과 사고 활동에 힘을 실어 주고 배움의 기초와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활동에 많은 사고가 동반되지 않을수록 이 취지에 가까워지며, 원활한 들숨과 날숨은 깨어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움직임이나 노래, 악기 연주 등이 리듬 활동의 재료로 활용됩니다. ♡

이윤옥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연구원)
강사 후기

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을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힘을 다해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으로 일주일한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내가 사랑한 발도르프 교육

안준희 (서울정릉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수강생 후기

코로나로 만남이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고 올해 여름 드디어 기다렸던 대면 연수에 참석할 수 있었다. 발도르프 교육을 접하고 알아가기 시작한 지 10년,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담임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선 것은 고작 1년도 채 안 되는 초보 교사였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연수 기간 내내 한미경 선생님의 청아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배움을 시작했다. 한미경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 내내 오이 리듬 교사의 본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다. 감미로운 피아노곡에 맞춰 우리는 다 같이 아름답게 움직이려고 애썼다. 회를 거듭할수록 동작이 어렵고 복잡해지는 와중에도 연수가 끝날 즈음엔 첫날보다 훨씬 동작이 자연스러워진 것은 확실했다. 아름다운 음악과 움직임 속에서 상기된 채 오이 리듬 수업의 시작을 알리셨던 마르가레타 레버 교수님의 <슈타이너가 말하는 발도르프 교육예수> 시간이 진행되었다. 교수님의 진심이 담긴 강연은 내가 발도르프 교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야 하는지를 곱씹어 보게 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으로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말씀에, 나의 지난 수업들이 과연 예술적이었는지, 무의미한 반복으로 채워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다. 늘 밝게 웃으며 연수생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고 소통하고자 하셨던 레버 교수님의 그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서 생생하다.

아름다운 소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위해 선택한 악기 중 하나인 리코더를 배우는 시간. 우리가 그냥 리코더를 불었을 때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집중해 들으며 불었을 때의 차이는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간단한 곡이지만 에텔바이스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할 때면 그 소리가 아름다워 계속 불고 싶어졌다. 리코더 합주는 모두의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던 순간이었다. 그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 높은 연주가 가능하게끔 끈기 있고 세심하게 이끌어 주신 이윤옥 선생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점심시간 뒤 막 잠이 솔솔 올 즈음에 재치 넘치는 신영주 선생님의 <움직임과 말하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도 내고 즐거운 게임도 하며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

이었다. 말을 잘하려면 움직여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열심히 더 크게 움직이며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배움의 시간이었다.

마지막은 마르가레타 레버 교수님의 <지리학> 시간이었다. 발도르프 학교의 지리학은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만들고 한다. 세상 만물에 관심을 두게 하며, 지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어느 하나 허투루 대하지 않는 귀한 인간성을 길러 주는 발도르프 교육의 매력에 나는 다시 한번 더 감동했다.

연수 기간에 가르침을 주신 모든 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기억에 고스란히 채워 아이들에게 하나씩 꺼내서 즐겁게 전달해줄 생각을 하니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다. 귀한 내용들이 교사라는 존재를 통해 아이들의 영혼에 기쁨으로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 ♡



2023 겨울 교사 아카데미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11기 1학기)

기간	2023년 1월 9일 (월) ~ 15일 (일) / 총 7일
장소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35)
내용	<p>인지학과 교육학 발도르프 교육학의 탄생 / 엠미 피클러의 영아 발달론 / 7년 주기 발달론 / 인류의 발달과 개인의 전기 작업 (비르기트 크로머, 마리-루이제 콤파니, 올리버 슈미트)</p> <p>교수방법론 발도르프 영유아 교사의 내적 자세 / 영아반과 유아반의 하루 리듬 (마리-루이제 콤파니)</p> <p>수공예 영아를 위한 인형 만들기 (한은숙)</p> <p>예술체험 색으로 표현하는 생애 주기 / 색채 명상 (올리버 슈미트)</p>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3기 5학기)

기간	2023년 1월 2일 (월) ~ 8일 (일) / 총 7일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76 성암빌딩 5층)
내용	<p>교육학 및 교수 방법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도르프 교육의 원동력 / 영양학과 인간학 (7~8학년) (엘마르 슈뢰더) 교육자의 자아 발달 / 수학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p>예술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합창 (이윤옥) 미술: 수채화 (6~8학년), 색채 관찰과 풍경화 그리기 (손석심)

아카데미 졸업생을 위한 심화 코스

기간	2023년 1월 9일 (월) ~ 11일 (수) 10:00 - 17:30 / 총 3일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76 성암빌딩 5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적 고유를 찾는 "자기 연마" (엘마르 슈뢰더) 생기를 회복하는 "오이리트미" (비르기트 크로머) 성장하는 인격체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 (마리-루이제 콤파니) 수채화 (주제: "개인과 사회") (올리버 슈미트)

2023 발도르프 현장 해외연수

일정	2023년 1월 19일 (목) ~ 31일 (화) (11박 13일)
대상	발도르프 영유아 / 학교 / 수공예 아카데미 연수생
내용	영유아 / 학교 현장 실습 (5일), 인지학 현장 탐방 (스위스 괴테아·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 및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대학·호프(Hof) 치유센터·위버링엔 발도르프 학교·캠프힐 공동체·인지학 농장·오이리트메움 슈투트가르트·오이리트미 공연 관람·현지 특강)

문의: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02-832-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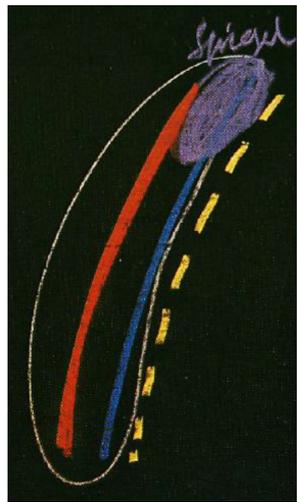
2022 국제특강과 세미나

- 44 발도르프 특수교육
- 48 인지학 영혼달력
- 49 혼합 연령 교실의 기적

발도르프 특수 교육 I

슈타이너가 치유교육 강좌를 한 것은 슈투트가르트에 발도르프 학교를 만들고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교육예술을 위한 《일반 인간학》이 출간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책을 기본으로 치유교육에 대한 연속 강좌를 하였습니다. 슈타이너는 이 강좌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4구성체, 인간 발달, 7년 주기, 인간의 감각을 전제로 진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치유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일반 인간학》에서 다룬 4구성체, 인간 발달의 7년 주기, 인간의 감각,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 그림은 슈타이너가 치유교육 강좌에서 칠판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표현주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복잡한 본질을 축약하여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슈타이너는 두 가지 영혼생명 혹은 내적인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 안에서 존재하고 작용하는 내적인 영혼생명과 태어난 후의 내적인 영혼생명을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커다란 타원이 있습니다. 안과 바깥쪽에 세 가지 빨강, 파랑, 노랑의 선과 보라색의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흰색의 커다란 타원은 모태의 자궁처럼 보입니다. 주황색 선은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태아에 있을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내적인 생명체 같은 것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선입니다. 주황색은 인간의 본질로부터 영혼 생명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안의 주황색에서 생성된 파란색은 모태에서부터 태아가 생명 활동을 관장하고 뇌까지 발달하게 만드는 상태가 이미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쪽의 전체를 칠한 보라색이 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란색의 영혼생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관을 발달시키고 뇌까지 작용을 하지만, 이 안에서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뇌의 형상과 기능을 비춥니다. 태아는 정신 존재의 힘을 받아서 외부 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감각을 바탕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생명의 활동인 감각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움직이며 밤과 낮의 길이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노란색 점선입니다.

슈타이너는 바깥쪽의 노랑 점선이 아니

게르하르트 할렌 (통역 여성훈)
강의 발췌

라 파란색 선이 지상의 삶이 시작하기 이전의 영혼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기 이전은 어쩔 수 없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영혼의 발달이 되는 21살까지 완전한 성숙이 될 때까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육자의 과제라고 설명합니다. [...]

장애나 치유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경우 파란색의 영혼생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영혼생명과 지상에서의 영혼생명 사이에 무언가 맞지 않을 때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주황색은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이고 파란색은 태어나기 이전의 영혼생명입니다. 이전의 영혼생명과 지상에서의 영혼생명의 공명에 나타나는 문제를 치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



할렌 선생님의 특수교육 강의를 듣고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독일 예나(Jena)의 라우엔슈타인(Lauenstein)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의 요청으로 1924년 특수교육 강의(GA 317)를 열었다. 그곳에 첫 번째 특수아동들을 위한 인지학 시설이 설립되었다. 1924년 슈타이너는 이곳을 방문하고 교사들이 아동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스위스 아를레스하임(Arlesheim)의 존넨 호프(Sonnenhof)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수교육 강의를 열었다. 이 강의에서 슈타이너는 1919년 일반인간학과 방법론에서 다루어졌던 기본적인 원칙이 특수교육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21년 슈투트가르트 강의에서 아동들의 체질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동의 체질 유형이 인간의 4구성체 안에서 어떻게 발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자면, 체질 유형에서 머리가 큰 아동은 머리에 온기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머리의 아스트랄체와 자아체가 확산하지 않도록 머리를 차갑게 하도록 조언했다. 특수교육 강의에서는 이 경우를 이른바 뇌수종(Hydrozephalus)이라고 더 근본적인 용어로 표현했다. 이런 아동의 경우 허부신체로 기운이 내려가지 않는다. 뇌수종의 전 단계는 저능(지적장애)의 경우로, 아스트랄체와 자아체가 허부로 들어갈 수 없다. 머리와 사지의 공명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공명은 사실 배

움의 전제가 된다.

교사로서 병증을 배우는 것은 아동을 돕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위해 의학적 도움이 요구된다. 그래서 특수교육은 괴테 아동의 교육 분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분과에 속한다. 그러나 체질 유형을 알고 그를 통해 아동을 돕는 것은 순수한 교육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 인간학이든, 방법론이든 그리고 그보다 더 심화된 특수교육 강의이든 발도르프 교육학의 기본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론으로 배웠다고 곧바로 이해될 수 없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끊임없는 체험이 녹아들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된 할렌 선생님의 특수교육 강의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다시없는 기회를 제공한 시간이었다. 특히 할렌 선생님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아동들과 경험하고 치유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나눔이었다.

슈타이너의 특수교육 강의는 근본적으로 수련을 위한 책이라고 본다. 처음 두 강의는 명상의 방법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 자신을 정화하도록 돕고 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다섯 번째 강의는 병의 현상을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방해를 받는지 깊게 이해할 가능성을 얻는다. 병의 현상을 기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을 통해 보여줌

장은심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오이리트미 교사)
수강생 후기

로써 일반 의학이나 일반 교육학에서 제시할 수 없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섯 번째 강의에서 열한 번째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아동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영감을 받고 치료적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열 번째 강의에서 열두 번째 강의에서는 교육자, 교사들에게 명상을 제시하며 정신세계와 연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동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 실체이다.

개인이 되었건, 그룹이 되었건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은 항상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질문은 스스로 명상과 이어져야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신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내면적인 대화의 과정이 이 어려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내적 힘이 될 것이다.

2022년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할렌 선생님의 두 번째 특수교육 강의는 슈타이너 박사의 어려운 강의를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모든 현장의 교사들에게 권할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이든 일정 시간을 경험한 교사이든 우리가 진정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공부의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

생명 활동이지만 교육 이상의 교육 - 발도르프 특수교육 강의를 듣고

1. 대중 속으로 간 장애

2022년 여름철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이나 최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니 얼굴》의 ‘다운 증후군’ 장애인도 한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각자 최선을면서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이라는 사람을 보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삶을 엿본 보통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서졌기를 기대해 본다.

2. 장애보다 먼저 인간

이번 게르하르트 할렌 교수님의 <발도르프 특수교육 I> 강의는 이런 긍정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 학생의 교육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강의의 첫 시간은 인간의 4구성체(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에 대한 설명과 감각론에 대한 안내로 시작되었다. 장애로 보이는 특성이 아닌 인간 본질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아야 하며, 개별 대상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진단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언어장벽의 아쉬움

사실, 독일어 강의를 즉각적인 통역으로 들어야 하는 처지에서는 놓치거나 곡해되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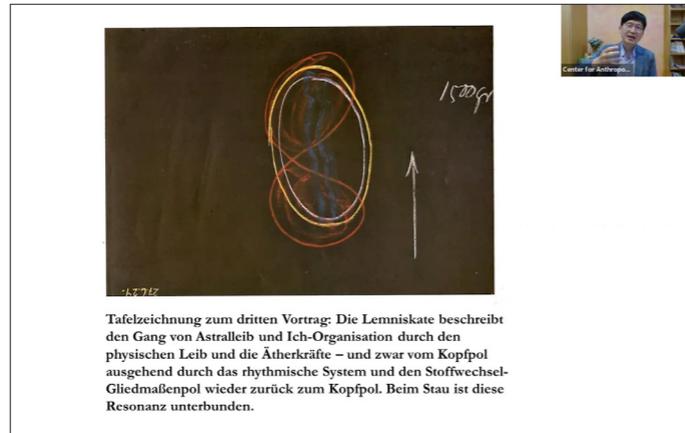
느낀다. 다행히 할렌 교수님의 사전 자료가 공유되었기에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경험에 의한 구체적인 사례 설명은 이번 강의의 최대 장점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이번 강의는 어렵고, 친절한 사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을 익히는 정도로 만족하게 된다.

4. 개념의 어려움

재육화와 카르마의 문제가 거론될 때는 ‘인지학’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대한 수궁

김덕윤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학부모)
수강생 후기

이 필요했다. 지금 보이는 특성을 고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교사가 대상 학생의 전생과 재육화 과정의 문제를 읽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내 머릿속을 더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4구성체 중 하나가 신체 기관(머리, 폐, 간, 신장, 심장)에 정체되어 나타나는 장애 특성을 진단하려면 무언가 특출난 눈이 필요할 것 같았다. 지금까지 배워온 특수교육은 장애의 증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분명 발도르프 특수교육은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그래서 특



수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치유 교육’이라는 용어가 어울리나 보다.

5. 교사의 무게

이 강의는 교사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 하는가?’라는 돌아보기를 하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교사의 지도법만이 아니라 교사라는 인간 자체가 갖춘 구성체의 힘이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나를 멈춰치게도 했다. 교사의 자아가 학생의 아스트랄체에, 교사의 아스트랄체가 학생의 에테르체에, 또 교사의 에테르체가 학생의 물질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교사라는 존재의 무거움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배움을 시작한 학생에게 교사는 세계의 전부가 된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살짝은 ‘나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들면서.

6. 발도르프 교육에서의 교육과 특수교육

‘교육은 인간에 대한 치유 활동이고, 특수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 활동이다.’라는 말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 나에게 각인된 교사의 자질은 ‘지구력’이다. 할렌 교수님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몇 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인이 된 그 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 점이야말로 인상적인 배움이 되었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가는지, 어떤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지를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또 나를 괴롭힌다. 장애가 아닌 보통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본다. 교육이 한때의 사무적인 관계로만 남는 것을 흔히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교육이든 학생의 삶을 동반해 주는 관계가 진정한 사제동행이 아닐까. 여기서 발도르프 학교의 8년 담임제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7. 개인의 고유성과 경향성

누구나 저마다의 기질을 지닌다. 그렇기에 학생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이 장애적 요소로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라고 한다. 그것도 여러 종류의 에테르가 여러 신체 기관에서 작용한다고 하니 또 어려워진다. 경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애 학생의 교육이 확실히 교육 이상의 교육임을 또 절감한다. 할렌 교수님의 설명처럼 각 기질에서 특정 에테르 작용에 따라 잠재력 경향이나 병리적 증상의 경향들을 알아내어 학생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의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어쩌면 이것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조금은 덜 막막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8. 황과 철

황과 철이 문제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

다. ‘황과 철’의 부족과 과다 문제는 내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치환해서 들렸다. 사실 어떤 것도 똑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 방해만 되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직도 되된다. ‘왜 황과 철인가?’

9. 말, 이야기 그리고 연극

교사의 능력은 얼마나 다양해야 할까? 대상 학생의 특성과 원인을 진단했다고 해도, 교사에게는 그것을 교육적으로 전개해야 할 능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고, 학생의 특성을 보완해 줄 이야기를 창작해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적 요소를 종합하는 연극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 할렌 교수님의 사례에서는 유독 연극 활동이 많이 등장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담임 과정의 중요한 졸업 프로젝트가 연극이라고 들었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비로소 연극이 종합적 교육 작업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아, 이제 연극을 배우러 다녀야 하나.

10. 교사의 발전기

할렌 교수님의 이번 발도르프 특수교육 강의에서 제시한 많은 사례 설명 중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 바로 ‘유머와 ‘쾌활’이다. 아마 어떤 특성의 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 필요한 요소를 설명한 듯하다. 교사에게 지구력이 중요한 자질이라면 멈추지 않는 발전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으로 나는 ‘유머와 ‘쾌활’을 삼고 싶다. 🌈

인지학 영혼달력

‘인지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으로 특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지학 영혼달력이라고 제목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지학은 자연계에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영혼과 정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볼 때 다시 ‘인지학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의 특징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계들이 인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재란 도대체 무엇일까?’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계가 어떤 부분은 분명 인간보다 더 수월하게 잘 실행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런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인간은 기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계문명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에게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지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홉 번째 영혼달력을 보겠습니다. 부활절 첫째 주를 시작으로 아홉 번째 주입니다. 이 시기는 5월이 지나서 6월로 넘어 갑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것 외에도 세상의 따뜻함과 온기를 우리가 많이 느끼는 때입니다. 그 잠언은 외부의 따뜻함이 우리 안으로, 우리 영혼 안으로 아주 깊이 스며드는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9

내 의지의 특성을 잇은 채
여름을 알리는 세상의 온기가
나의 정신과 영혼의 본질을 채웁니다.
정신의 통찰은 나에게
빛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것을 명하고,
예감은 내게 힘차게 알려줍니다.
너를 찾으려면 너를 버려라.

-유월 첫째 주 (1912. 6. 2 - 8.)

이 세상의 온기가 내 의지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려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감이 마치 길을 인도하듯 어떤 힘으로 작용하여, ‘너의 영혼은 바로 여기로 가야 돼.’하고 도와줍니다. 인간의 자아가 바로 이렇게 사라지고 생성한다는 비밀을 내가 깨우칠 때입니다. 이런 걸 알아차릴 순간입니다.

소멸과 생성은 머리로 명석하게 파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나의 예감을 통해 체험되어야 합니다. 소멸과 생성은 지상 위에 있는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비밀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 실제 예술 활동의 과정 역시 소멸과 생성의 과정과 유사하게 일어 납니다. 배운 것을 내려놓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아야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열 번째로 갑니다. 여기서 2주기 지나면
요한 축일의 분위기가 옵니다. 이때 고도의

마르가레타 레버 (통역 한미경)

강의 발췌

정점에 이르는 인간 영혼의 특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히 높이 오르는 상이 그려봅시다. 바로 이 순간의 ‘예감’은 우리를 조금 더 멀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감’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한 해의 흐름 속에서 가장 고조된 순간을 표현합니다.

10

어름의 정점에서
태양의 존재가 광채를 뿜으며 솟아오릅니다.
그 존재는 인간적인 내 감정을
광대한 공간으로 가져갑니다.
내면에서 감각은 예지적으로 움직여
나에게 회미하게 알려줍니다.
너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신의 존재가 바로 너를 느꼈음을.

-유월 둘째 주 (1912. 6. 9. - 15.)

“너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아니어도 너의 사고가 다시금 좀 더 명료해지는 순간이 오면 네 영혼이 체험했던 걸 너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내적으로 체험한 것, 즉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영혼을 자기 품에 안고 아주 멀리 간 것임을 상징합니다. 달리 말하면 반대로 나의 자아가 신의 두 팔에 아주 편안하게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의 팔에 안겨 있는 상태는 신적인 존재와 나의 존재가 아주 가까워진 순간입니다. [...]

혼합 연령 교실의 기적

강의 발췌

미국의 혼합연령 교실

안드레아 감바델라 (통역 여성훈)

발도르프 교육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교육 이념 안에서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혼합연령 구성입니다. 특히 혼합연령 그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발도르프 유치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떤 식의 통찰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혼합연령 그룹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장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가 이갈이가 시작되기 전까지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원칙이 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방으로부터 아이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과 기능 등을 배우고 익힙니다. 모방이 가장 중요한 배움의 원칙이 되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의외적 움직임, 생활 태도, 활동, 내면의 상태 같은 것들, 다시 말해 아이들을 위한 환경, 가정, 사회에서의 삶에서 얻는 일상적인 체험, 이것이 바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 영유아기의 본성을 키워줍니다. 혼합연령 그룹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큰 아이들의 보호를 받고 조언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아이에게서 놀이의 자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놀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

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에서 모범으로 삼게 됩니다. 즉,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을 따라 하기도 하고 언어 발달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방의 모델이 어린아이 주변에 가득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혼합연령 그룹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자신들의 앞선 기량을 사용해서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기회를 얻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미 어린 시절을 지내고 유치원을 떠나야 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느긋하게 유아기의 마지막을 즐기는 시간을 즐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 6.5세~7.5세 사이에 에테르체가 탄생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인지적 학습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온 힘을 쏟던 에테르체가 배움의 능력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은 놀이의 즐거움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즐거움은 아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섞여 있는 덕분에 아이들은 조금 더 유아기에 머물 수 있기도 합니다.

혼합연령 그룹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이가 많은 아이들로부터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큰 장점이 되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 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 성장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지적인 학습 자체와 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놀이를 못하게 되고 상업화한 세계 안에서 자아의 발달 같은 것을

놓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합연령 유치원에서 만 3~6세까지 각기 어떤 점에서 이익을 얻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동이나 막내로 태어난 아이들이 집에서 겪지 못하는 것을 혼합연령 안에서 다양하게 겪게 됩니다.

[...] 



독일의 혼합연령 교실

마리-루이제 콤파니 (통역 이정희)

혼합연령을 구성할 때 교육자의 입장에서 영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전문지식이 세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혼합연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발달 이후 아동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를 전제로 혼합연령을 바라봅니다. 일반 교육학과 다르게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발달을 세부적으로, 다각도로 바라봅니다. 아이의 발달은 끊임없이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는 표현은 어느 순간 아이가 변모하는 단계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약 7년간, 첫 번째 7년 주기 동안 아이는 신체적인 발달을 이룹니다. 각각의 장기가 자신의 고유한 형태로 발달합니다. 두뇌뿐 아니라 감각기관 전체가 발달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그것이 약간의 모양과 토대만 놓았을 뿐입니다. 생후 7년간 성장하며 자신의 모양으로 발달해 나갑니다. 이 기간에 아이에게 감각적인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날 때 신체적인 발달이 조화롭게 진행됩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말하는 하부위 감각 발달을 위해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균형감각, 움직임 감각, 생명감각과 촉각의 발달이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는 하루 생활에서 아이들의 감각 활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네요. 많이 땀 수 있고 기어오를 수 있고 수공예로 뭔가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부위 감각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현장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혼합연령에서의 큰 장점은 아이들이 놀이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전세계적으로 역할 놀이로 엄마, 아빠 놀이를 합니다. 이런 역할 놀이 상황에서 꼬마가 되었던 강아지가 되었던 어린아이들이 그 역할을 자진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큰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보살피고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놀이가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은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이것은 혼합연령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리고 혼합연령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

신만의 능력을 쌓으며 기쁨을 느낍니다. 교사들 역시 즐거움이 대단히 크고,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의 성장에 기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 성장에 대한 기쁨을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교육 속에서 일어납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만 3세부터 6세까지 삼 년간을 동행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유아기를 안정적으로 보낸 아동은 학교의 배움이 무난하게 일어난다고 부모들이 전해 줍니다.

혼합연령을 선생님이 막 세 돌을 지낸 아이들을 삼년간 보살피면서 아이마다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교육자의 눈에는 강점을 어떻게 더 뒷받침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혼합연령의 실천은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3년간 긴 세월을 같은 교사가 아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저절로 쌓이며 내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관계 맺음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돈독하고 안정적인 신뢰의 토대는 영유아기에 만들어 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과의 관계에서 신뢰감, 안정감을 가지면 학교에 들어가서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동의 관계 형성은 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에서 만들어 집니다. 학교는 과목마다 교사가 바뀌고 수업시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감, 심리적 안정감의 기초 형성은 유아기의 과제입니다.

이처럼 혼합연령의 실천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린 아이들의 배움은 성장하면서, 즉 일상 생활에서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본보기와 모방이 일어나기 때문에 혼합연령에서 어린아이들은 조금 큰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배웁니다. 혼합연령의 운영은 무엇인가를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성숙합니다. [···]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예비 어머니를 위한 시

높은 곳으로부터 작용하는 정신의 별
주변에서 창조하는 태양의 힘
심연으로부터 올라오는 신의 권능이
사람이 될 씨앗에게
축복과 치유와 생기를 넣어
몸이라는 성전을 선사합니다.

자유로이 주재하는 정신의 빛에 비치어
사랑을 내어주는 영혼의 힘으로
신뢰를 봉헌하는 희생의 의지로
사람이 사람의 아기에게
몸의 자양분을
영혼의 성장을,

신의 피조물에게 지상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주가 희생하고
정신들이 축성하고
자아의 의지가 작용하고
정신은 거룩하며
말씀이 살아 있으니
신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자식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연도 미상

출산 전

그리고 아기의 영혼,
그것은 당신 뜻에 따라
정신 세계로부터
나에게 왔으리라.

출산 후

그리고 아기의 영혼,
그것은 당신 뜻에 따라
정신 세계를 향해
내가 인도하리라.

-연도 미상

태양의 빛이
누리를 밝히고,
새들의 노래가
온들로 퍼지고,
초목의 축복이
지상의 존재를 깨우니
인간의 영혼은
감사의 정에 겨워
우주의 정신으로 승화하네.

- 1910

밝은 태양이 비쳐
사람의 눈이 즐거워하듯,
모두에게 살아있는 신의 정신,
보이지 않는 이 태양은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비추니

영혼도 즐거워하네,

1919년 11월 21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파울 헬무트 씨에게
1914년 5월 2일,
루돌프 슈타이너 드림

- 파울 헬무트 폰 베틀자-위크,
열한 번째 생일을 맞은 아이의 사진에 쓴 글

이것이 내 사고 안에 있는 의도,
내 안의 남자다움이 깨어나
일상의 임무를 올바르게 하기를,
또한 배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이것이 내 의지 안에 있는 감정.
사는 동안 많은 일을 하여
사람의 참된 지상 목표에 도달하기를.
또한 삶을 피워내는 모든 힘이
근면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기를.

언젠가 자라 어른이 되면,
나는 알게 되리라,
젊은 시절의 그런 사고와 감정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또한 평생 얼마나 굳게 이어지는지를.

루돌프 슈타이너

-한지 그로스하인츠의
열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12학년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머나먼 인생 행로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사랑 넘치는 젊은 시절
심장에 찍어 넣은
진정한 인간 본성의
도장이리라.

깊은 기억 안에
선명하게 머물러야 하리,
심장이 뛸 때마다
영혼이 발견하게 될 것,
정신의 인도로
애정 어린 인생 수업의
힘 안에서 얻은 그것이.

- 1924년 4월 루돌프 슈타이너



응용인지학의 현장 소식

- 56 희수자연학교
- 58 동림자유학교
- 60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 61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 부모 손뜨개 모임
- 63 한국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연대

ESG 경영을 실천하는 희수자연학교

희수자연학교는 울산에 있지만, 1분만 가면 경주 땅을 밟을 정도로 외곽에 있습니다. 20년간 생태 교육을 주제로 운영하다 보니 인근 다른 도시에서도 교육 철학이 맞는 분들이 찾아서 오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87명의 아이를 위해 열한 분의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도우시는 아홉 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마을 맞춰 일하고 계십니다. 희수자연학교의 교육 철학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생님들이 근무하기 위해 찾아서 오시고 한번 입사하면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 정교사 채용 공고를 몇 년에 한 번씩 낼 정도로 다들 오래 근무하십니다.

생태계는 유기적입니다. 하나가 무너지

면 연결된 다른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수자연학교에서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 몸의 건강을 위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면, 땅은 황폐해지고 식물은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보기 좋은 모양으로 크게 키우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먹거리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유전자 변형식품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식 동물인 소에게 혼합 사료를 주어 광우병을 유발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생각하면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희수자연학교는 식재료만이 아니라 운영 전반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희수자연학교 가방

백승미
(울산 희수자연학교 원장)

은 석유를 원료로 한 원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해운대 바다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회사의 면 파라솔을 시즌이 끝나면 세척하여 희수자연학교 가방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또한 희수자연학교의 벽면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황토 벽돌과 라주어 페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한식의 맛을 더 잘 느끼도록 스테인리스 식판 대신 도자기 그릇에 제공합니다. 87명이 사용한 도자기 그릇을 매일 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복하게' 자라게 하려고 희수자연학교는 실내외 공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실내에서는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사다리과 3단 책상을 달팽이 끈으로 연결하여 건축물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발도르프 어린이집이 그렇듯이 교실 안의 놀이감은 전부 천연소재로 된 것으로 채웠습니다. 전체 대지가 600평 정도여서 아이들이 뛰어 놀 마당도 제법 규모가 있으며, 텃밭과 목공 작업을 위한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해가 잘 드는 쪽 동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흡산이 있습니다. 흡산에 삼으로 길을 파서 물을 부어 물길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앞 트리하우스 아래에는 밧줄로 만든 그네가 있는데, 오래 앉아 타면 엉덩이에 밧줄 자국이 남으니 조금씩 타고 양보하여 회전율이 높습니다. 트리하우스에 올라가면 높은 뽕나무에 열린 오디를 바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

으로 오디를 따먹고 손과 얼굴에 검붉은 오디물이 묻은 모습은 70년대 우리 모습 같기도 해서 너무 사랑스러워 질로 미소가 지어 집니다. 마당에는 복숭아, 키위, 자두, 호두, 앵두, 뽕나무, 뽕나무, 아기 사과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소꿉놀이 재료로 풍성하게 쓰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래 놀이터에는 정수장 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는 특별한 모래를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삼으로 아무리 파도 땅이 아닌 모래가 나오도록 70cm로 넉넉히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한 깊이와 양의 모래에서 마치 바다에 온 듯 마음껏 놀입니다. 모래 놀이터에는 2층 건물보다 큰 느티나무가 아이들에게 그늘을 줍니다. 그느티나무는 아이들에게 주는 나무처럼 그네도 타고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튼튼합니다. 그 아래에서 찌그러진 냄비와 프라이팬, 숟가락과 삼으로 엄청난 규모의 소꿉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학습으로 원형 탈모가 되어 온 아이, 종이로 된 학습지를 거부하는 아이, 말문을 닫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을 여는 것을 봅니다.

'풍요롭게' 자라게 하려고 희수자연학교에서는 만 3-5세 혼합연령으로 반을 구성 하였습니다. 혼합연령 편성은 한 자녀로 자라는 경우가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다른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 놀고 때로는 갈등을 겪고 해결하면서 더 풍성한 관계를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부모님께서 고집이 세다고 걱정하던 다섯 살 아이는 언니, 오빠의 사랑도 가득 받으면서 따르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양전하기만 한 일곱 살은 동일 나이에서는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지만 혼합연령 안에서는 어린 동생들에게 따뜻한 리더로 인기를 한 몸에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혼합할 뿐 아니라 장애 아동과도 통합합니다. 누구라도 장애를 가질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어쩌면 우리 모두 한 영역 이상에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장애는 기피할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은 특별하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적 필요를 최선을 다해 채워주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장애 아동으로 입학한 후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전환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아이에게는 각자 그런 특별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좀 더 많고 적은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다

양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여러모로 세우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 주눅들 일도, 비장애라고 딱히 당당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 같지만,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기에 완전 통합의 꿈을 가져 봅니다.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하는 세상은 다양한 아이들을 다 품을 수 있으니 아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이가 온 그 결대로 지켜 주기 위해 성인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지 깊이고민하면서, 섬세한 눈빛으로 아이를 찬찬히 바라보고 자기 빛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



희수자연어린이집 기방 '희수백'

해운대 아이들생협 회원 한 분께서 추석 연휴기간에 연락이 왔다. 명절에 만나 가족들에게 파라솔 가방을 소개했는데 가족 중 한 분이 큰 관심을 보이셨다. 명절 연휴지만 혹시 작업실에 나올 수 있는지 물었다.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곧 작업실로 나가겠다고 했다. 함께 오신 분은 윤계로서 울산에서 희수자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다.

어린이집의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큰 분이였다. 파라솔 재사용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더니 놀랍게도 어린이집 가방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량이 작고까지 100개. 부산과 울산은 오가며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함께 원생 가방의 크기와 디자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만들기 시작했다. 가방 속에 물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흙더를 만들어 넣었다. 이때 만든 어린이집 가방의 원형은 여성용 가방으로도 팔리고 있다. 모델명이 희수백이다.

희수자연어린이집에서 주문한 예고백 그래서 '희수백'이다.



동림자유학교를 소개합니다.

2009년 봄, 용인 동림리에 터를 잡고 입학생 29명과 교사 8명으로 시작한 동림자유학교가 개교 13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100가구 이상의 재학생과 스무 분이 넘는 선생님들이 새 학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개성과 행복은 물론이고, 발달에 따른 상태를 고려하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입시교육'이나 '경쟁'에 얽매이

기보다 자신들의 발달에 맞는 교육 과정과 수업 방법으로 배우고 '머리, 가슴, 사지'를 고루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확장하면서 배우고 형태, 수와 언어를 통해 세상을 만나기 시작하는 1학년.

자신과 주변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대조와 대칭 연습을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2학년.

동림자유학교 학부모

땅과 생활을 일구면서 세상과 아이들의 단단한 연결을 돕는 활동을 하는 3학년.

많은 움직임과 활동을 통해 세상과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4학년.

배움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발전하고, 균형 잡힌 몸과 풍부한 느낌을 통해 배우는 5학년.

두 발로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세상과 소통하며 과학, 천문학, 역사를 배우는 6학년.

시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풍부한 감성과 파노라마 속에서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7학년.

인류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며 동시대의 자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8학년.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시작되며 새롭게 발전하는 영혼이 깨어나는 9학년.

'되여가는' 인간 존재인 아이들이 자신 안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과제를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학령기 이후의 삶 속에서 펼쳐내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발도르프 교육철학이 교과 과정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동림자유학교는 두려움 없이 배우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내 아이'의 성취에만 집중하지 않고 학교와 학습을 '교육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학사운영위원회, 중장기 발전위원회 뿐 아니라 입학 소위, 교육 소위 등의 소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잘 유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모임, 어머님들의 리



코더 모임, 수공예 모임, 어머님들의 합창 모임, 시설 유지를 위한 느티나무회 모임 등 학교를 둘러싼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사공동체를 이루어 교

육 운영을 책임지고 실행하며, 교육학 회의 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동림자유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꿈의 공간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공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더 알고 싶은 분들께 저희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drfreeschool.kr>

소개 영상
<https://youtu.be/1obzvRFK8rE>

인스타그램
[@dongrimjau](https://www.instagram.com/dongrimjau)

자라는 아이들, 성장하는 어른들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부천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최초의 전철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지천이 복숭아밭이었다던 들과 언덕은 도시화하면서 집과 사람들로 가득해졌고 여느 도시처럼 분주하고 복잡한 삶이 바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당연한 일상을 의심한 적이 없는 우리에게,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람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꿈결 속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이 발도르프 유치원으로, 또 학교의 실현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자유발도르프 학교는 그러한 작은 소망으로부터 생겨난 작은 학교입니다. 성주산 밑 교회 한 칸에서 아이들 아홉 명과 부모님들, 정교사 세 명, 그리고 기꺼이 도움을 준 과목 교사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적인 교육이 관치는

곳에서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메마른 도시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선물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부천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 동화양상블 초청 공연과 작은인형극 공연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즐거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며 몸과 마음이 자라는 것처럼 학교도 행복과 기쁨,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해 한해 성숙해지며 성장하여, 지금은 성주산을 떠나 까치울역 근처 원미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에 둘러싸여 봄에는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며 학교 가는 길을 하얗게 덮고, 학교 앞 마당과 텃밭에는 메뚜기와 사마귀가 아이들 손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곳입니다. 함께하시는 선생님들도 열네 명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매일 시를 외우고, 공부하고, 농사짓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하루하루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의 8학년 프로젝트와 연극, 마침식이 있었습니다.

유희경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교사)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는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교육과 학교 운영이라는 어려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며 하루하루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한 달에 한번 발도르프 교육과정에 관한 공부,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발도르프 교육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내면의 성장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달 부모님들과 함께 읽는 '동화의 지혜'에 나오는 헨젤과 그레텔처럼 아이들도 지상에 육화하기 위해 마녀의 숲으로 들어가 용기 있게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도,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점점 물질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변화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장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슴에 간직하며, 유혹과 위험이 가득한 마녀의 숲에 기꺼이 뛰어들어 용기와 지혜를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열.뜨 모임 이야기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손뜨개 모임

조혜영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학부모)

가을,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의 초입. 각 발도르프 학교의 바자회 알림이 떠오를 때입니다.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갈런드와 장식품, 드림캐처, 교통카드 지갑, 가방, 바구니, 목도리, 아이들 놀잇감 등. 올해는 무엇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가 시작되던 1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뜨개질로 해마다 바자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손뜨개로 생쥐를 만들었고, 뒤이어 4명의 소모임으로 꾸러진 뒤 12명까지 늘었지만, 지금은 두 분의 졸업생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최종 5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재능기부로 바자회를 준비하며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2년의 공백기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서울자유교육공동체 카페에서 판매하고 반짝 시장을 통해 배달 판매하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

네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바자회가 조금 유명하지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의 재능과 솜씨가 좋아서 해마다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열정뜨개 모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처럼 손뜨개 모임이고, 가장 오래된 소모임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시작을 함께했으니 까요. 저희 소모임은 바자회를 위한 모임으로, 손뜨개를 배우고 익혀서, 하나는 내가, 하나는 바자회에 재능기부하는 형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 혼자였고, 그 다음다음 해에 4명에서 모임을 만들었지요. 4명의 학부모가 모여 첫 소모임의 이름을 짓던 날 여러 개의 이름이 올라왔지만 만장일치로 '열정 뜨개'(열정을 가지고 뜨개질하자)라 모임 이름을 정하고, '열.뜨'라는 애칭으로 모임의 뜻을 올렸습니다. 혼자서 수십 가지의 물품을 만들 때는 힘겹고 부담스러

웠는데, 4명이 힘을 합치니 너무나 수월하고 작업이 재미있었습니다. 매해 열리는 핸드메이드페어에 다니며 아이디어를 얻고, 서점에서 손뜨개 책을 사 모으며 손뜨개 작품 만들기에 몰입하였습니다. 회의를 하여 그해 만들 작품의 종류와 수량을 정했습니다. 만들어 보고 공유하면서 해마다 손뜨개 실력이 늘고 작품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만나면서 돈독해지는 관계맺음이었고, 새 식구도 늘어났지요. 몇 년은 잘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만들 줄 알게 되니까 내놓기 아깝다고요." 저는 웃으며, "사랑은 하되 정은 주지 마요." 하고 농담처럼 말해 주었습니다. 힘들게 공들인 작품이 순수한 재능기부로 판매될 때, 처음에는 감동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만든 자식같은 작품이 팔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



이니까요. 저도 첫 바자회에서 1주일씩 밤을 새가며 수십 가지 물품을 만들어 준비한 스스로가 기특했고, 완판되어 학교에 전액 기부할 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팔려가는 물품을 보며 씩씩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지나 누가 보기에라도 사고 싶은 작품이 되었을 때 기쁘면서도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답게 나오는 작품을 다른 사람 앞에 판매하려고 내놓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랑은 하되 정은 주지 말라는 농담을 하며 달래 주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약발이 떨어지는 듯,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늘지 않는다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인내와 각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손뜨개 작업이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완성품이 나올 때마다 뿌듯함에 무엇인가 자꾸 만들고 싶어 식구들의 식사 준비도 잇는 채 뜨개질을 하다가 한 소리 들으면서도 즐겁게 한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기소침해지는 텃민들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바자회 형태가 전액 기부에서 판매금의 일정액 기부로 조정되었고, 우리 모임도 판매금의 일정액은 기부하고 나머지는 소모임 비용으로 모임 때 활용해 보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소모임 운영 비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며 모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하여 물품을 만들기로 이야기하여, 이제는 자기가 맡은 물품을 만들고 수량을 책정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도르프 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게 되었고, 수공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의 깨달음! 만들기에만 너무 급급했던 건 아닌가요? 발도르프 학교의 수공예 과정이나 의미를 생각하며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게 있지는 않았는가?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기술만 공유하고 정말 의미 있는 나눔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 동안의 공백 기간을 지나 바자회가 다시 기지개를 켜기 위해 움직이는 이때, 우리도 다시 열정을 모아 힘차게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년에 준비했던 물품과 새롭게 좀 더 만들 물품을 합쳐 멋지게 바자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는 나눔을 해 보고자 합니다.

12학년인 딸아이의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아쉽지만 학교에 계속 머물 수 없으니, 실력 있고 좀 더 모임을 잘 이끌어 줄 후배 학부모님께 떠넘기다시피 모임의 장을 물

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졸업하더라도 열뜨 모임을 위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생각이지만, 계속 이 모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올 바자회를 준비하려 합니다. 재능기부와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음을 나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롭게 들어올 기대주 학부모님들을 기다리며, 앞으로 우리 열정뜨개 모임 화이팅! 



2022년 발도르프 영유아교육 컨퍼런스 “우리는 발도르프 교육예술가입니다.”

한국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연대는 2019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2020년 10월 국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협회(IASWECE)에 회원가입 국가로 인준되었고, 현재 35개 기관이 국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협회에 가입되어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들은 성장·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본성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 라고 루돌프 슈타이너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개별체로 세상에 오고, 자신의 재능·관심·취약점을 가지고 발달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을 미리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심한 관찰과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아이들에게는 능력 있는 본보기, 사랑이 가득하고 안전한 관계, 개개인의 고유 발달 시기에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 단계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 모든 단계는 성인이 된 먼 훗날 삶의 형성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초석입니다. 이에 “우리는 발도르프 교육예술가입니다.” 라는 주제로 2022년 9월 24일 2022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도르프 교육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대내외에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교육 현장의 유형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발도르프 교육이 실천되는 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제 강연

필립 로이프케 (국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협회 이사, 피테아눔 교육분과 교수)
통역 이정희

사랑하는 참석자 여러분!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는 한국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 직접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줌으로 연결된 것도 아쉽습니다. 세 번째 유감은 이 컴퓨터에 연결된 카메라가 화질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만남에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발도르프 영유아 교사라 하면 영아 교사가 됐건 유아 교사가 됐건 상당히 멋진 직업이지만, 본인의 경험상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어려운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인정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 활동, 다시 말해 영유아 교사의 활동 사실은 가려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외부에서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에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교

육을 새롭게 세우지는 내용의 프로젝트로, 교육 문화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모임입니다. 전체 보고서에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명에 대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심 테마로 우리 지구 행성과 인류가 현재 겪는 위협이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현재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강조합니다. 발달과 개발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지구를 파괴하는 바람에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가 회의적인

자세로 추락하는 대신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자 여러분은 발도르프 영유아 현장에서 우리 미래를 우리가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희망은 교육자의 손에 있습니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속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커다란 메시지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자로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미래의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있나요? 20세기의 교육을 돌아보면, 교육의 목표는 세계 시민의 육성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시민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길러내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식 교사가 아니라 "교육예술가"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더 복잡해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훨씬 힘이 든다는 호소도 있습니다.

교육예술가로 활동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예술을 연마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예술가를 두고 조형물 같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자주 목격하실 겁니다. 어느 공간이 텅 비어 있으면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방방 똥니다. 반대로 공간에 놀잇감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아이들은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던지면서 거칠게 놀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텅 비어 있어도 안 되고, 꽉 차 있어도 안됩니다. 그 중간을 여러분들이 탐색해 나가야 합니다. 공간을 구성할 때 천장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됩니

다. 실내 조명은 너무 어둡거나 밝아도 안 됩니다. 공간을 잘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유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곳은 조도가 중간이고 어느 부분은 좀 밝게 하고, 천장 역시 높낮이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유 놀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놀잇감을 잘 만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교사가 아이를 위한 놀잇감을 사랑을 담아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창의성은 놀잇감을 통해 발달합니다. 놀이에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놀이는 설명에 의한 깨우침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유 놀이는 창의적인 생각을 키웁니다. 교육 예술가로서 여러분이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놀잇감을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빛나는 2022, 여럿이 함께

- 66 내부강좌 이모저모
- 73 인지학센터 소식
- 74 위탁기관 소식
- 76 신간 소개
- 79 후원 안내
- 83 후원신청서
- 85 202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 86 광고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1기 졸업생들의 오이리트미 공연



회원들의 리코더 연주



발도르프 교육현장 사례 발표



한국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연대(KASWECE, Korea Association for Steiner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는 슈타이너의 첫 번째 7년 주기에 역점을 둔 영유아교육과 관련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 운동을 전개하여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의 질을 보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에 시작되어 2020년 10월 국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협회(ASWECE)에 가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급 과정

나임 발도르프 평생교육원은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주 위탁 환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교육생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발도르프 교육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도르프 유아 교육의 핵심과 실제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아 발달의 새로운 이해와 실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특히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특징인 교육예술적 접근을 위해 손유희와 라이겐, 라이어, 습식수채화 등으로 교사의 예술성을 함양한다.

• 발도르프 영·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적 이해를 돕고,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사를 이끈다.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일과를 구성하고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한다.

• 발도르프 영아 교육의 핵심과 실제

국가 수준의 표준 보육 과정에 맞추어 영아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영아 발달의 새로운 이해와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키운다. 특히 발도르프 영아교육의 특징인 존중과 협력적 돌봄의 이론과 실체를 배우며,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존재로서의 영아의 주도성과 의지를 지원하도록 교사의 내적 역량을 강화한다.

• 발도르프 현장 리듬 구성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기관의 현장리듬 구성을 통해 계절과 절기에 따라 매월 이루어지는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월별로 이루어지는 계절 노래, 손유희, 동화, 수공예 등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익힌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는 교육예술가로서 자신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성을 심화할 수 있다.

• 발도르프 영유아 음악

노래 부르기, 악기 (라이어, 리코더) 연주하기,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예술적 감각과 심미감을 키우는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한다.

• 발도르프 영유아 미술

영유아의 발달에 근거하여 자연이 보여주는 다양한 빛과 색채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며, 습식수채화, 밀랍 크레용 그리기, 밀랍 점토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내재된 예술적 감각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 발도르프 손유희와 라이겐

손유희와 라이겐은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진행되는 교사 활동으로 리듬이 있는 노래와 동작으로 사람의 행동과 자연의 현상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이다. 영유아가 움직임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일정한 리듬 활동으로 세상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활동을 지원한다.

•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 구성하기

연령과 흥미에 적합한 놀잇감을 영유아들에게 제공하여 놀이를 지원하고 놀이를 통한 배움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영유아의 신체 놀이, 감각 탐색 놀이, 역할 놀이, 쌓기 놀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는 좋은 놀잇감을 선정, 제작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영유아 보육 현장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놀이 지원과 개별화 교육 계획 실행 방법을 배움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한다.

자격증 과정

2015년 첫 예술 공예 강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 슈타이너 인지학센터에서는 총 8개의 민간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1. 국제 발도르프교육예술가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13-00410

발도르프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배우고, 국내외 발도르프 교육 기관의 현장 경험을 통해 강사의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다.

2.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등급: 기본, 강사)

- 등록번호 2014-4769

인지학에 바탕을 둔 심리학, 교육학, 인간학을 이해하여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환경적, 정서적 지지 기법을 습득한다. 과정 이수 후에는 부모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상담 기관이나 보육 시설 현장에서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 및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3. 발도르프 예술 공예 강사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15-001426

발도르프 교육학의 이해와 인지학을 바탕으로 “예술로서의 교육”을 실현할 능력을 지향한다. 발도르프 공예(수공예, 목공예)와 예술(미술, 음악, 오리트리미, 연극) 분야의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기획, 지도할 수 있다.

4. 발도르프 미술강사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19-002907

미술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다. 이수 후에는 발도르프 미술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현장(유아교육 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양성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발도르프 음악강사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20-004263

음악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도르프 음악 활용을 익힌다. 이수 후에는 발도르프 음악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유아교육 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기획할 수 있다.

6. 발도르프 이야기 전문가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20-042704

발도르프 이야기 들려주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다양한 교육 현장(유아교육 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나이에 맞는 이야기를 선별하여 아동을 지도하고, 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발도르프 손유희·라이겐 지도자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20-004705

발도르프 손유희·라이겐의 이론과 실체를 익혀서 연령에 맞는 수업을 다양한 교육 현장(유아교육 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나아가 이 분야의 전문 지도자로서 코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8. 피클러 산후 육아 지원 전문가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20-04706

피클러 영아 교육학을 토대로 하는 육아 지원 전문가로서 실무 능력을 쌓는다. 다양한 관련 현장(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교육기관)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22년 내부 강좌 이모저모

발도르프 학교 에포크 (주기집중) 수업

“발도르프 학교 에포크 (주기집중) 수업”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슈타이너가 제시한 교과 방법론을 학년별로 다루는 과정입니다. 2022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년별 에포크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이와 연계된 예술 작업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빛과 그림자

- 청소년기 지도교사를 위한 흑백그림 수업

새로운 발달의 국면을 맞이한 6~8학년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흑백 그림을 창조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치유 형태 그리기

형태 그리기는 슈타이너가 교육 과정으로서 제안한 과목으로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 예술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유 형태 그리기 시간에는 아이들의 연령별 신체적 특징과 아동 관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교육적, 치유적 관점으로 다뤄보았습니다.



계절 밀랍 크레용 그림 그리기 -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계절의 분위기에 알맞은 그림을 밀랍 크레용을 이용하여 그려보는 수업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발도르프 미술 교육에 대해 더 깊게 이해를 가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빛 그림 (발도르프 장식) 만들기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빛 그림을 만들어 발도르프 교육 현장을 꾸미고, 색채의 의미와 공간의 역할을 이해해봅니다.



계절 노래 부르기

루돌프 슈타이너 5음계 노래를 중심으로 계절 별로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 좋은 노래를 배워보았습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움직임과 함께 들숨과 날숨을 이용하여 쉽고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화 속 지혜 : 좋은 동화 고르는 법

아이들에게 날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동화 속 지혜” 수업에서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좋은 동화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동화 속에 담긴 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킨더 라이어와 오음계 리코더 중급 과정

아이들을 고요한 “천상의 공간”으로 이끄는 킨더라이어와 따스한 호흡이 담긴 오음계 리코더의 아름다운 울림과 소리를 경험하고, 이러한 울림과 소리가 내면에 일으키는 공명을 느껴보는 수업입니다.



1일 워크숍: 인지학 예술 치료의 이론과 실제 “내 안의 치유 동물”

인지학 예술 치료 기관을 소개하고, 대상 및 치료로서의 흙 매체를 이론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인지학 미술 치료에서 중요한 진단 도구로 사용되는 흙 작업을 통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힘을 깨우는 흙의 치유력을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도르프 수공예 교육

인지학센터에서는 “놀이감 만들기” 강좌와 “수준별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시리즈”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열려있는 감각을 자극하고 성장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감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 형태를 갖춘 인형을 보면,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무한한 상상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도르프 학교 에포크 수업 수강 후기

초보 교사의 어려움 - 에포크 수업

왜 꼭 해당 학년에 그 주제의

에포크가 필요한가?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필요한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까?

학년과 주제와 계절에 맞는

노래, 시, 이야기는?

칠판 그림은?

참고가 될만한 책은?

담임 교사로서 학년 초, 학기 초에는 위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마치 바다에 뗏목 하나 띄우고 항해해야 하는 것 같은 막막함을 안고, 인간학을 읽다가 동화책을 뒤지다가 잠이 든 다음 날, 어찌어찌 수업의 대략적인 열개를 짜고 내적인 그림을 그렸는데도 정작 수업 열기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다. 그런 날은 자괴감이 들어서 남몰래 가슴을 친다. 이러던 차에 발도르프 학교 에포크 수업 강의가 개설되었다. 김주아 선생님의 강의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더 반가웠다.

좁으로도 따뜻함

좁으로 강의 듣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리코더 연주와 노래를 통해 우리를 화음으로 이어주었다. 질문과 대답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고, 칠판 그림 그리기는 강의 시간을 훌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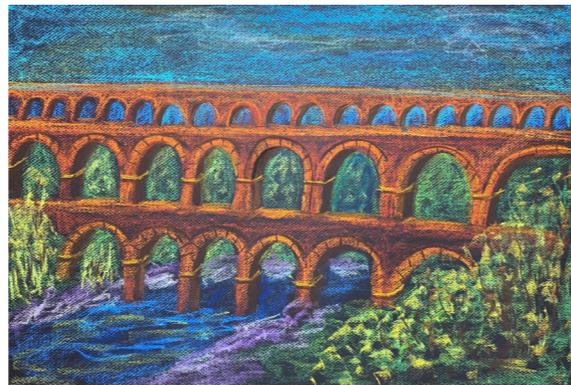
넘겨 이어졌다. 형태 그리기나 칠판 그림은 숙제가 배운 것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은 커다란 보따리에 선물을 가득 담은 산타처럼 학년에 맞는 에포크 수업 내용을 풍부하게 아낌없이 풀어서 전해 주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위한 에포크 수업을 들었는데, 4년 동안의 에포크 과정을 풍부한 흐름에 따라 미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각 학년에 맞게 에포크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명확하게 중심을 잡는 동시에 공책 정리 이끌기, 문장 쓰기와 맞춤법 이끌기, 수와 셈 이끌기, 학년 발달에 따라 교

한재음
(서울빛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사와 학생들 사이의 역동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대응 등 학교 현장의 일들이 풍부한 경험과 함께 펼쳐졌다. 학년별 형태 그리기, 맨손기하, 기하작도, 신화, 역사, 동네학, 지리학,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천문학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칠판 그림, 주요 수업 내용 펼치기, 조소 작업과 함께 안내되었다. 저걸 언제 다 읽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관련 도서도 소개되었다.

개인적으로 제일 도움을 받은 부분은 칠판 그림 그리기였다. 에포크의 중심 내용을 칠판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중심 내용 잡기, 전체적인 윤곽과 인물 배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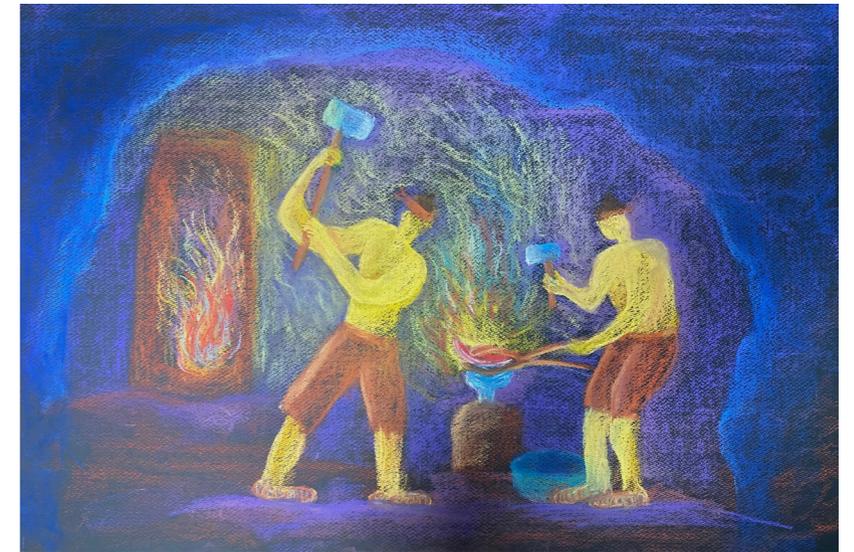


전체적인 분위기를 색조로 표현하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다.

배움을 바탕으로 나아가기

대장간 수업이 인상적이었던 나는 3학년 우리 반 어린이들의 수공업 수업을 대장간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충북 보은에 있는 대장간은 농경문화 체험관 안쪽에 독립 구조로 있었다. 농경 문화관을 짧게 둘러본 뒤, 앞치마와 토시, 보호 안경을 쓰고 화덕 앞에 둘러섰다. 아이 하나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선생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대돼요.”

대장간의 하루는 불 붙이는 일부부터 시작되었다. 부싯돌을 부딪쳐 일으킨 불꽃을 숯 솥에 옮기고 입으로 불어 불을 살려낸다. 원래는 말린 쭉으로 고운 솥을 만들어 불씨를 살린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천을 솥처럼 만들어서 썼다. 작은 불씨가 불이 되는 과정은 매우 신기했다. 불꽃이 일어나면 잔가지를 넣어 불꽃을 키우고, 조개탄과 숯을 더 넣어 화덕에 넣는다. 그리고 풀무질을 할 차례다. 풀무는 손풀무였는데, 밀고 당기며 바람을 불어넣었다. 풀무 소리와 함께 불길이가 타오르자 불 속에 넣어 두었던 쇠막대기가 빨갱게 달아올랐다. 대장장이가 집게로 쇠막대로 쇠를 집어 모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메로 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두 사람이 힘을 맞추어 번갈아 내려치는데, 먼저 치는 사람의 빠르기에 따라 재미있는 장단이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두드려서 물건을 만드는 단조 기법으로 모종삽을 만들



거나 쇳물을 녹여서 목걸이를 만드는 주조 기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원하는 물건을 만들고 돌아왔다.

학교로 돌아온 뒤, 수업 열기로 대장간에서 메질하던 리듬을 떠올리며 장단을 주고받았다. 아이들은 생활 주변에서 쇠로 된 물건을 찾아보며 많은 부분에서 쇠가 쓰이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워했다.

대장간 수업을 하며 온기에 대해 생각했다.

차가운 쇠를 녹이고 변형시키는 힘. 철은 매우 뜨거운 온도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사람 사이에서는 따뜻한 온기로 인해 변화가 일어난다.

에포크 수업을 통해 만났던 김주아 선생님. 그 많은 내용을 전달하며 차근차근 중요한 내용을 밀도 있게 전해주던 따뜻함, 얼굴 전체에 흐르는 미소, “사랑하는 선

생님들!” 하며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도 그 따뜻함이 옮겨왔을 거다. 그 수많은 말 중에 나는 이 말을 기억한다.

“에포크 준비는 2, 3년 전부터 하라.”

“법칙을 발견하게
행하며 느끼게
행위를 즐겁게
반복하는 습관으로 교육하라.”



칠판 그림:
<발도르프 학교 에포크 수업> 강사 김주아 선생님 작품

빛 그림 (발도르프 장식) 만들기 수강 후기

발도르프 미술 2급 자격증 과정을 듣고 난 후 발도르프 예술의 조형적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빛 그림 만들기 강좌가 열려서 반가운 마음에 수강하게 되었다.

몇 년 전 인지학센터 바자회에서 독일 발도르프 킨더 공간을 오묘하게 빛으로 채워 주던 빛 그림 사진을 실물로 마주하고는 반가워서 얼른 산 적이 있다. 이후 빛 그림 강좌를 들을 곳이 마땅찮아서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강좌를 마주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처음 발도르프를 접했을 때는 공간을 채우는 색채가 영적 무거움으로 내게 비쳤다. 그런데 이번 빛 그림 만들기는 라주어나 습식, 밀랍 크레용 그림과는 또 다른 색의 빛으로 자연의 빛을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이기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화해졌다. 그래서 이 빛 그림은 자연의 빛이 많은 봄,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적합한 만들기라고 보면 되겠다.

빛 그림 강좌 첫 시간에 강사인 손석심 선생님은 모호했던 '예술과 공예'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예술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공예는 목표가 정확한 작업으로 완성 후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빛 그림 만들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왜 예술을 하는 걸까?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내적 필요로움이 강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지고 여유로워진다. 그래서 공간의 아름다움은 매우 중요하고 그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빛 그림 만들기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는 기대와 함께 첫 빛 그림 만들기를 시작했다. 별 종이를 오각, 육각, 팔각으로 접고 오려서 꽃, 별, 눈송이 모양 등을 모빌로 만들어 장식할 수 있었다. 별종이를 여러 개 겹쳤을 때 드러나는 모양이나 색깔은 빛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봄, 여름, 겨울의 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빛 그림 만들기 작업은 계절의 색채를 다시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봄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움츠려 있다가 막 깨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린 생명을 생각하며 연두, 분홍, 개나리, 병아리,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적합한 만들기라고 보면 되겠다.

전혜정 (울산 희수자연학교 교사)

새싹 등을 습자지로 구성하여 표현했는데, 습자지의 특성상 얇아서 도안에 붙일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몇 번 하나씩 그것도 나름 방법이 생겨서 풀로 살짝 붙이고 겹치니 좀 더 깊이 있는 색도 표현이 되었다. 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힘인 따뜻한 온기가 가득 펼쳐지고 재잘거림이 빛을 통해 인식되었다.

봄의 밝음이 성숙이 될 때 막 깨어나는 색이었다면, 여름의 밝음은 햇빛을 받아 점점 활동적이고 질게 성숙한 색채이다. 여름에 경험하는 꽃은 봄의 꽃보다 더 질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질은 초록이 된다. 활동성이 들어 있는 색, 강렬한 해, 좀 더 과한 하늘, 자연적인 특성인 습함 등을 빛으로 들여오면 되는데, 나의 직관적 사고로 인해 계절의 요소를 빛 그림으로 들여오는 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여름이라는 자연의 본질적 요소보다는 그 열기를 수그러지게 해 시원하게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영유아 현장에서는 교사가 도안 준비 후 습자지를 찢어서 콜라주처럼 할 수 있다면, 청소년과는 예술적 작업으로 명화를 보고 연결해서 빛 그림 작업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자연의 빛을 공간으로 들고 오는 것, 공간의 빛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하는 것, 빛을 무의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에테르체에 많은 영향 준다는 사실을 이번 강의로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건강한 생명체를 위한 빛의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온라인 강의로 만나는 <<일반 인간학>>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는 지속되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육적 공백을 극복하고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일반 인간학>>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기획하였습니다. 엘마르 슈뢰더(Elmar Schröder) 교수님을 모시고, 통역 여상훈 선생님과 함께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간학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200명이 넘는 연수생이 본 강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생물학자이며 인지학자인 슈뢰더 교수님의 강의는 인간학 이해의 지평을 폭넓게 열어 주고 살아움

직이는 교육적 영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슈타이너 교육론의 원천인 인간학은 “교육자의 본능”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인지학센터는 본 강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발도르프 교육 운동에도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바, 슈뢰더 교수님과의 협의로 일반 인간학 다시보기 영상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인간학 다시보기 영상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 영상 편집인과 협

력하여 강의 내 모든 텍스트 및 시각 자료를 한글로 변환하였으며, 강의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편집하여 수업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을 되풀이하여 볼 수 있으므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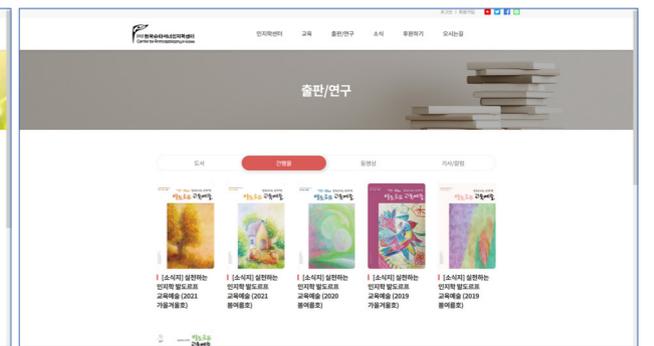
일반 인간학 다시 보기는 총 14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를 조만간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가 홈페이지(www.steinercenter.org)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인지학센터의 교육 과정 정보와 다양한 소식

및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인지학센터에 개설된 강좌를 PC나 모바일을 통해 편하게 조회하

고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 또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실 경우 마이 페이지를 통해 수강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학센터 홈페이지 개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과 함께 할 3년

2010년 10월 개관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은 영유아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영유아 전문 놀이공간'이자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육아 지원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송파가 가진 데이터도 의미심장합니다. 송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영유아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이며 어린이집 수와 보육 교직원 인원, 어린이집 정원 총족률 등에서도 다른 구를 앞서고 있어 보육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우리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가 2022년 10월부터 송파구로부터 위탁 받아 3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이하 회관)은 영유아보육법과 송파구 조례에 근거하여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육아와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사업 기준으로 놀이 체험 문화예술 사업, 재능 개발 사업,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장난감 도서관 통합 사업, 네트워킹 사업 등 6분야 27개 주요 사업으로 구현됩니다. 이러한 기능과 내용은 우리 인지학센터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방향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실천해 온 인지학센터의 시간은 교육 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과 목직한 저력에 대한 기대로 회관 운영에 대한 권한이 맡겨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3년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지만, 교육운동의 장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었음을 달게 느끼며 회관 사업을 통해 보다 더 놀이 중심, 영유아 존중의 핵심 가치가 실현되도록 진전할 것입니다.

면적 5,715㎡의 회관 건물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장(아이소리홀), 다목적 움직

이명희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임 놀이가 이루어지는 체육교실, 유아들의 요리 활동이 가능한 요리교실,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놀이체험관(상상마루), 좋은 놀이와 놀잇감을 접하고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자유 놀이 공간, 강의실과 상담실,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많은 하늘과 맞닿은 옥상 정원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례와 송파동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공동 육아방의 분소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5,715㎡ 하드웨어 구축구석에서 의미 있는 교육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며 공간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본성과 고유성이 존중 받으며 타고난 성장의 힘이 깨어나 생명력 넘실대는 송파의 모습 또한 그려봅니다. 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함께하는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전경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위탁운영 기념식 (2022년 10월 16일)

서초아이발달센터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진희
(서초아이발달센터 센터장)

「서초아이발달센터는 2021년 11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가 서초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내 최초 가족 중심 조기개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센터의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지학센터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과 가족의 호응이 센터가 틀을 갖춰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립된 지 1년이 안 되었지만, 그동안 센터에서 진행해 온 사업이나 행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홍보

개관 후 직원들이 센터 홍보물을 주민 센터에 전달하면서 센터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실에 가지 않고도 가정으로 전문가팀이 방문하여 자녀의 발달을 평가해 주고 특수교육, 재활치료 및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여러 홍보 매체(TV, 신문, 유튜브, 등)를 통해서도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와 가족을 동시에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알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가족중심 조기개입 센터' 이기에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이런 지원을 받도록 조기개입센터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 조기개입 프로그램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방문 조기개입을 진행했을 때보다 약 2배의 새로운 아이들과 가족이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바빠지고 힘들긴 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 부모 교육 (영상, 소그룹)

영유아 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다양한 주제(두뇌 발달/의사소통/감각 통합/행동 문제/기질/운동 발달/교육기관 안내)를 다루는 부모 교육을 3월~4월 두 달간 진행했습니다. 부모 필요에 맞춰 주말과 주중에 15번에 걸친 소규모 화상교육을 하였습니다. 부모들이 다양한 정보를 들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4. 어린이집 지원 연구

우리 센터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이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원 파일럿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센터 특수교사가 같이 아동을 관찰하고, 교육계획을 세우고,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발달을 돕는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5. 피질시각장애 부모 교육

시각 장애의 많은 경우는 눈 자체의 문제보다 뇌 손상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피질시각장애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이의 시각 발달을 돕는 데 어려움 많았습니다. 서울대 소아안과 김정훈 박사님과 함께 피질시각장애 부모 교육을 4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부모 자조 모임이 생겨났고 센터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6. 서초구 장애인복지관과 MOU 체결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관련 기관들과 연계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6월에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장애인복지관)와 MOU를 맺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연계 체계와 프로그램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7. 부모 양육 스트레스 관리 코칭

발달 지연이나 장애 영유아 부모 중 양육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구의 「서초나비코치단」과 협업하여 부모가 스스로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 하이탑 운동화 나눔

운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하이탑 운동화 나눔을 하였습니다. 하이탑 운동화는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아이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그 수는 적었지만 사용한 운동화를 이용자로부터 수집하여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서초아이발달센터가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공공기관의 역할을 만들어 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보람찬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및 발도르프 교육서 소개



유아 현장을 위한 기초 오이리트미
 현대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언어와 움직임
 자비네 다이만 지음 / 이정희, 여성훈 옮김 / 13,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독일 오이리트미스트 협회 내 유아 오이리트미 연구 분과에서 현장 교사와 오이리트미스트, 나아가 유아를 위한 기초 오이리트미를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발행한 책자로 기초 오이리트미의 교육적 효과를 현대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움직이는 언어”의 전달 방법을 예문과 함께 설명한다.



우리 아이, 학교에 가도 될까요?
 학교 입학에 위한 유아 성숙도의 관찰
 WECAN (북미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연대) 저 / 신현승 옮김 / 8,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북미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연대가 유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아이의 ‘온전한 발달’ 기준, 학교에 가기 위해 아이의 신체와 영혼이 준비되었다는 징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며,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을 알려준다.



아기는 놀이에서 배운다
 현장을 위한 영아보육학 기초
 모니카 알튀, 안야 베르너, 안케 친저 지음 / 이정희 옮김 / 14,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호기심과 무한한 관심을 가진 아기는 놀면서 세상을 발견하고, 놀이 과정에서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세상을 발견한다. 놀이 공간 구성, 월령별 놀이감, 순수 놀이를 향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보육의 첫걸음



아기와 대화하기
 아기는 우리에게 말을 건다
 우테 슈트롭, 안나 터르도시 편저 / 박성원 옮김 / 13,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어른의 관심과 언어를 감지하고 귀를 기울이는 아기의 본성을 이해하는 엄마와 보육교사는 끊임없이 아기와 대화하려 노력한다. 아기의 신체와 마음, 언어 능력을 깨우는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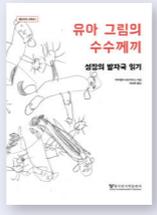
나, 너 그리고 우리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사회성 기르기
 안나 터르도시, 아나 베르너 편저 / 박성원 옮김 / 14,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현실의 모든 삶은 만남이다.” 이 사회적 만남의 기초는 영아기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다.
 ‘배려와 존중의 돌봄’을 기초로 그 형성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저귀와 작별하기
 괄약근 조절과 아이의 자의식 발달
 유디트 팔크, 마리아 빈체 지음 / 박성원 옮김 / 10,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기저귀 떼기의 올바른 관찰과 지도 방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서



자유놀이의 시작
 에바 칼로, 지요르기 벨로그 지음 / 박성원 옮김 / 10,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첫 돌 전 아기의 전형적인 손놀림을 이해하고 적절한 놀이감을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유아 그림의 수수께끼
 성장의 발자국 읽기
 미하엘라 슈트라우스 지음 / 여성훈 옮김 / 24,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발도르프 교육의 고전, 영유아기 그림 언어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



발도르프 성교육
 아동발달을 토대로 한 성교육 지침
 마티아스 바이스 외 지음 / 이정희, 여성훈 옮김 / 12,000원 / 생크스마트 발행
 발도르프 교육학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심리상담 치료사가 교육적 관점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성의 발달에 어떻게 동행하고 성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안내한다.



셋다운!
 미디어 정글에서 우리 아이 구하기
 독일 미디어 진단 지음 / 여성훈, 이정희 옮김 / 14,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자 저주가 되었다. 이 책은 발달 단계에 따라 미디어가 아이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사례와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그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디어 교육의 기초에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법률적 조언에 이르는 지침을 모두 담았다. 교육자와 부모의 필독서.



발도르프 육아예술
 조바심·서두름을 치유하는 거꾸로 육아
 이정희 지음 / 14,000원 / 생크스마트 발행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43가지 발도르프 육아 이야기. 인지 위주의 학습을 멀리하며 자유로운 놀이로 아이 고유의 본성을 이끌어 내는 한편, 건강한 신체 발달을 이루고 자신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발도르프 유아 교육법을 제시한다.



발도르프 아동교육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이정희 옮김 / 12,000원 / 생크스마트 발행
 루돌프 슈타이너는 영유아기를 포함하여 유년기,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기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양육과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동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발도르프 교육 원리는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아이의 내면 발달에 초점을 두면서 사람의 본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동반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이유대로 “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발도르프 치유교육
 아동·청소년기의 현대병을 예방하는 교육
 미하엘라 글뢰클러 지음 / 김훈태 옮김 / 14,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저자 글뢰클러 박사는 인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교육 활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요소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생리학과 의학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슈타이너의 이해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또한 발도르프 교육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요약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조력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핵심적인 교육적 과제를 제시한다.



발도르프 교육예술
 인간의 본성이 중심인 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17,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런던에서 발도르프 학교를 모델로 하는 초등학교 설립이 결정되었을 때 그곳 초대 교사진을 위해 이루어진 강연을 기록한 책이다. 슈타이너 박사가 생전에 제공한 마지막 교육학 강좌로 주목 받는 이 자료를 통해 인간 본성을 중시한 발도르프 교육예술의 정수와 여러 교과목의 혁신적 교수방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
 특별히 실러와의 관계를 참작하며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박지용 옮김 / 14,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유를 통해 “정신이 현실인 세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 슈타이너 인식론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 결론의 철학적 원천은 괴테 저작의 “내적인 확실성과 조화로운 완결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 철학과 신칸트 학파의 인식론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정신 세계의 현실을 지지하는 인지학이 창설된다. 슈타이너 인식론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전집 제2권의 첫 한국어 완역판.



철학·우주론·종교
 인지학에서 바라본 세 영역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13,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철학·우주론·종교 영역의 인식론을 올바른 개혁으로 이끌 루돌프 슈타이너의 정신과학 선언이자 인지학적 인식론 체계의 본격 해설서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내 인생의 발자취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35,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발도르프 교육학의 창시자이자 인지학의 설계자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육성으로 들려주는 깨우침의 기록이자 고백록



인간과 지구의 발달
 아카샤 기록의 해석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25,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우주와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카샤”(우주 만물)에 새겨진 생성과 발달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인간과 지구의 발달을 설명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논집 《아카샤 기록으로부터》의 한국어 초역판



인지학 영혼달력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 52편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8,000원 / 한국인지학출판사 발행
 루돌프 슈타이너가 봄에 접어드는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1년 52주, 52개의 잠언을 모아 엮은 책. 계절의 흐름에 따른 우주의 순환과 자기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 가득한 연결을 생성한 이미지로 그려냈다.

2023~24년 출간 예정 도서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교육의 기초인
일반인간학

정신과학적 인간 이해의
교육적 실제
-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신비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교

보이는 노래인 오이리트미·
음악오이리트미 코스

비밀학 개요

괴테의 세계관

색채의 본질

과학과 진실

신지학

<발도르프 교육서>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모든 것

아уди오판 - 듣기 예술

발도르프 영아교육 지침서

<피클러 영아보육학 시리즈>

영유아를 위한 준비된 환경

혼자 힘으로 식사하기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2016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 교재와 슈타이너 전집 출간을 위해서 한국인지학출판사를 설립 하였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질적 향상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슈타이너 타계 10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방대한 전집(GA) 354권 중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자료부터 번역, 출간 하자는 뜻이 모여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전집출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의 구성들은 출판기금 마련과 자료 선정을 돕고 출간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집출간위원회는 발도르프 교육의 확산과 인지학 정신문화 운동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 계획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ttps://steinercente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9-321956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1구좌 100,000원
*입금자명에 [출판]후원자임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2022년 11월 현재)

D.모로 H.자이델 M.레버 P.랑 강아미 강애란 강자경 고도겸 구태영 권근례 권영완 권희려 김관우 김계연 김꽃님 김남희 김미서 김백기 김세환 김송미 김수남 김영미 김용인 김윤희 김정기 김정임 김철기 김태영 김태희 김현주 김훈태 모명숙 문지숙 문지은 박계연 박계옥 박성금 박애란 박용옥 박춘신 배건호 백선미 석진미 선우숙 손석심 손에녹 송광수 송미령 송윤경 신동춘 신미현 신영주 신은주 신인자 안미순 안소희 안지윤 안지환 여상훈 오경희 오윤선 오해년 오화남 윤인영 윤정민 윤정원 이강두 이기림 이미영 이미정 이상윤 이상희 이선아 이소영 이소윤 이연희 이영숙 이윤옥 이은희 이정자 이정화 이정희 이지영 이진우 이창미 임지영 장구지 장서원 장은심 정다운 정다운 정재연 진채희 천경자 최계연 최분희 최종희 최한희 하건호 하주현 하태훈 한남희 한미경 한은숙 함형진 현진성 홍귀자 홍명애 홍윤문 황인화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주)W네트웍스(벨레다) 삼아알미눔(주) (주)아이보트투어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서햇빛발도르프킨더가르텐 길벗농장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도서출판 씽크스마트 동그라미발도르프어린이집 동원육영재단 마리아의어린이집 미래숲유치원 발도르프유아교육동문회 부산발도르프학교 부산발도르프학교 교육부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발도르프연구회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시립햇빛유치원 어린이박물관카페"도담도담"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영천금호어린이집 서울오이리트메움 1기 졸업생 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이화영유아발달연구센터 이화유치원 인지학센터치유교육소모임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파팔라코리아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한울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홍성밀크퀵살
---	--	--	---

2021-22년 출판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권영완 김계연 김훈태 문지숙 배건호 신영주 이상윤 이연희 이영숙 이정희 이진우 장구지 장서원 박계연 여상훈 김태영 신인자 이윤옥 장은심 현진성 김미숙 오경희 천경자 박용옥 이정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오이리트메움 1기 졸업생 도서출판 씽크스마트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삼아알미눔(주) 시립햇빛유치원
---	---	--------------------------------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안내(8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인지학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응원



든든 버팀목

후원회원 **1000명** 을 모십니다

2021 기관회원

-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 경희의료원직장어린이집
- 구립꿈마루어린이집
- 구립큰솔어린이집
- 금호어린이집(경북 영천)
- 꽃가람발도르프어린이집
- 꿈꾸는어린이집
- 꿈별어린이집
- 나무와새어린이집
- 낙원어린이집
- 도담어린이집
- 두빛나래터발도르프 어린이집
- 또래숲속학교(수원또래숲속발도르프
킨더교육원)
- 미소지움어린이집(경북 영천)
- 바람아래발도르프어린이집
- 반석어린이집
- 별꽃씨어린이집
- 춘천별동지어린이집
- 별빛어린이집
- 사과나무어린이집
- 서구청직장어린이집
- 서마어린이집
- 서초구립아이숲어린이집
- 소사주공어린이집
- 소화발도르프어린이집
- 송파꿈꾸는어린이집
- 수잔나어린이집
- 순어린이집(제주)
- 숲속나무어린이집
- 숲속아이어린이집

- 숲에노닐다어린이집
- 시립고양어린이집
- 시립장현루벤시아2차어린이집
- 시립햇빛어린이집
- 아기나무어린이집
- 아이마을동구나무어린이집
- 여월주공어린이집
- 영아아이조아어린이집
- 오금숲어린이집
- 옥천어린이집
- 온유어린이집
- 우방아이유첼어린이집
- 원주별동지어린이집
- 은혜어린이집
- 이화유치원
- 인천발도르프킨더가르텐 빛의 아이들
- 자람어린이집
- 자연발도르프유치원
- 자연어린이집(용산)
- 자유산새어린이집
- 작은동지어린이집
- 지구촌어린이집
- 초록새나무어린이집
- 춘천별숲어린이집
- 크니크니어린이집
-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
-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 풍영이감성놀이터
- 하늘구멍어린이집
- 하늘숲선교원
- 한빛어린이집
- 항동발도르프어린이집

- 항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 햇빛자연발도르프어린이집
- 햇살나무어린이집
-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행복한발도르프어린이집
- 화랑어린이집
- 환타지자유어린이집
- 후평우미어린이집
-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 파스텔 어린이집

2022 기관회원

- 강남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 경희의료원 어린이집
- 구립군자동꿈모음어린이집
- 구립올림픽파크꿈별어린이집
- 금호어린이집
- 김포발도르프해꽃별(교육선교원)
- 꽃가람어린이집
- 꿈꾸는어린이집
- 꿈마루어린이집
- 미소지움어린이집
- 바람아래발도르프어린이집
- 별꽃어린이집
- 별동지어린이집
- 별빛어린이집
- 사랑나무어린이집
- 서마어린이집
- 서초구립아이숲어린이집
-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 소사주공어린이집

- 송파오금숲어린이집
- 수잔나어린이집
- 순어린이집
- 숲속아이어린이집
- 시립장현루벤시아2차어린이집
- 아이마을동구나무어린이집
- 옥천어린이집
- 우방아이유첼어린이집
- 자연발도르프유치원
- 자연어린이집
- 자작나무어린이집
- 작은동지발도르프어린이집
- 크니크니어린이집
-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
- 포은어린이집
- 항동발도르프어린이집
- 항동발도르프킨더교육원
-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헤움문화예술치유연구소
- 화랑어린이집
-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00년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기관 연회비, 든든 버팀목 후원금(정기후원)과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에 뜻을 함께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CMS 후원을 전화(02-832-0523)와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9-321956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나눔을 실천해 주신 버팀목 후원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정기후원

- KWACK K 강성수 강아미 강애란 강윤숙 강자경 강효은 고도겸 고미숙
- 고민아 고희경 고희란 공수현 광시내 광해정 구태영 권수자 권영완
- 권현정 권희려 길종각 김경주 김경화 김계연 김길섭 김꽃님 김나래
- 김나영 김나현 김덕옥 김동욱 김동중 김동현 김동현 김미서 김미현
- 김민영 김병철 김보민 김상미 김선아 김선주 김선집 김성흔 김세정
- 김세환 김송미 김수민 김숙경 김영선 김용원 김윤미 김윤희 김은숙
- 김은실 김은정 김은희 김일선 김자경 김정순 김정연 김정희 김중현
- 김주선 김주아 김주연 김지미 김지숙 김지영 김지은 김현숙 김충환
- 김태욱 김해련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혜전 김희연 김희원 김희준
- 남가희 남미영 남윤겸 노재민 노지원 노택균 도서출판푸른씨앗 동지영
- 류명숙 모명숙 문소영 문지윤 민영숙 박동진 박미숙 박복실 박선영
- 박성숙 박세정 박수경 박숙이 박용옥 박은영 박은혜 박정열 박정은
- 박준성 박향연 박현미 박현정 박현철 박혜경 박혜영 백다교 백미희
- 백선미 백수명 백승미 백승은 백승주 서경희 서미정 서승미 석은녕
- 선우숙 설수진 설하영 손명희 손민정 손병숙 손석심 송경수 송광수
- 송윤경 송중수 송한울 신경혜 신순영 신승혜 신영주 신인자 신정아
- 신현선 신희성 심기성 안명희 안봉균 안소희 안지은 안현순 안형주
- 안희정 알프스어린이집 양경미 양현정 여민정 연태순 오경희 오미진
- 오미희 오유진 오윤선 오혜년 오현숙 용소연 원진연 위지선 유병현
- 유상영 유선영 유주연 윤서영 윤양순 윤영아 윤인영 윤정원 윤진숙
- 윤창환 윤채원 윤효원 윤성아 이강두 이건희 이경옥 이동화 이명화
- 이명희 이미구 이미숙 이미영 이민아 이민영 이상임 이서경 이석미
- 이선주 이소영 이소윤 이소현 이수은 이신자 이연옥 이연희 이연희
- 이영선 이영숙 이영주 이예빈 이윤정 이윤정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 이은정 이은주 이은혜 이재현 이재희 이정미 이정숙 이정자 이정희

-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진우 이창미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 이혜연 이희연 임기홍 임명숙 임숙자 임승미 임우선 임윤희 임은정
- 임은진 임은화 임정미 임지연 임지영 임채나 장구지 장서원 장세경
- 장수연 장은심 전귀옥 전난영 전민선 전영희 전정현 전혜정 정경임
- 정고은 정근수 정기옥 정나란 정나래 정나래 정다운 정명화 정 선
- 정수정 정수희 정윤미 정은미 정은미 정재영 정지민 정지영 정태기
- 정향미 정현남 조미연 조미형 조용미 조일석 조정하 조지현 조혜선
- 조혜영 지현애 차유미 차일순 천경자 최공주 최계연 최미나 최분희
- 최석원 최선호 최성희 최수진 최영서 최영순 최영은 최유미 최유진
- 최은애 최은영 최인숙 최정진 최주옥 최진희 최한희 최현성 최혜경
- 편명신 하주현 하태훈 한교숙 한기옥 한성호 한요엘 한은숙 한재용
- 한혜은 함혜숙 허설향 허정희 허혜우 현상두 현진성 홍귀자 홍명애
- 홍유영 홍울문 홍은정 황선호 황지연

2022년 코로나 특별 후원

- 김송미 김하진 권영완 이명희 이미영 이미화 이정희 이창미 조혜선
- 한미경 게르하르트 할렌 마르그레타 레버 미하엘레버 브리기트 크로머
- 파트리치아 베르크만 하이오 데커

센터 이전 기념 후원

- 김태욱 이창미 신영주 이정자 이지영 이연희 오경희 한은숙

2022년 신규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성흔 김수민 신경혜 안현순 여상훈 이명희 이윤정 정근수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인지학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든든버팀목 후원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든든버팀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든든버팀목 후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은 인지학센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펼쳐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속한 날짜에 해당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월 1만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후원자로 초대합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는 2025년까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저서와 강연록 등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우리글로 번역·출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은 100,000원을 1구좌로 하는 일시후원입니다. 전집 번역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1구좌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판 및 번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한 번의 후원이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한국에 인지학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CMS 후원, 출판 후원 모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학센터에 후원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사진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우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76 성암빌딩 5층
팩스 02-832-0526 |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카카오톡 채널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문자 010-5209-0532(사진 전송 가능)

문의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02-832-0523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후원 신청서

후원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든든 버팀목 후원과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특별 후원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종류 및 후원정보

선택 체크 (중복 가능)		상세 사항				
□ 든든버팀목 후원 (CMS)	정기 후원금(택 1)	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출금예정(택 1)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1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후원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를 경우 반드시 예금주 동의란을 작성해주세요. (신한은행 140-009-321956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인지학 출판후원 (비정기)	후원금(택1)		<input type="checkbox"/> 1구좌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2구좌 200,000원	<input type="checkbox"/> 자율구좌	원
	입금자명					
	후원일		년	월	일	
□ 특별후원 (비정기)	후원금					
	입금자명					
	후원일		년	월	일	
☎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9-321956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본인은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운동에 동참하고자 위와 같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동의: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작성해주세요. 예금주는 출금통장의 거래 날이나 서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물질 속에서 정신을,
지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 존재를 돌보는 일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Center for Anthroposophy in Korea

05659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76 성암빌딩 5층
T. 02-832-0523 | F. 02-832-0526 | anthroposophy@hammail.net
인세비 3,000원